



한컴 인공지능 '세종1호' 내년 우주로 11



이용우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책임 있다" 23

코스피(2일)	코스닥
3175.85 (-31.17P)	1047.19 (+1.21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161.50 (+4.30원)	1.422% (+0.006%p)

'40조 구독시장' 소비자 보호망 두터워진다

여신協, 정기결제 사업자 규제 금액변경·유료전환·환불절차 7일 내 서면·전화 등 고지해야

40조 원 규모의 '구독경제(정기결제)'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 기준이 구독경제의 빠른 확장세를 따라가지 못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구체적인 보호책이 마련돼 구독경제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

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정기결제에 대해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결제대금 변경 시 고지 및 거래 취소 등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다 보니 부작용이나

타나기도 했다.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 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경우도 있었다.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사업자와의 계약 체결·갱신·변경할 경우 △유료전

환 또는 결제대금 변경 시 사전 고지 △정기결제 해지 등의 신청 수단 마련 △고객에 대한 환불절차를 반영해야 한다.

정기결제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거래 내용과 금액, 결제일, 환불 등의 거래 조건 등에 대해 7일 전까지 서면, 전화, 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를 취소하거나 해지를 원할 경우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 등 고객상담을 통해서도 요청 사항이 접수

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환불 조건 역시 공정성이 강화된다. 정기결제 철회·취소·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이용일수, 이용회차 등에 비례해 환불해야 한다.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할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15일까지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을 시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회에서도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전자, 2억화소 이미지센서 개발

'아이소셀 HP1·GN5' 2종 공개 화질 손상 없이 빠르게 초점 잡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이미지센서 2억 화소 시대를 열었다. 앞으로 초고화소와 픽셀 미세화 등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니를 넘어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관련기사 10면
삼성전자는 2일 세계 최초로 '2억 화소'의 벽을 뛰어넘은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HP1'과 최소 크기의 듀얼 픽셀(Dual Pixel)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GN5'를 발표했다. '아이소셀 HP1'은 0.64μm(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픽셀 2억 개를 1/1.22인치 유틸컷포맷(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이미지가 인식되는 영역의 지름) 크기에 구현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 최초 1억 800만 화소 이미지센서를 출시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최초로 2억 화소 제품을 출시하며 차세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제품에는 촬영 환경에 따라 4개 혹은 16개의 인접 픽셀을 조합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독자 신기술 '카멜레온셀(ChameleonCell)'이 최초로 적용됐다.

고화질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인접 픽셀 4개를 하나처럼 동작시켜 화각 손실 없이 초당 30프레임으로 8K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도 탑재됐다.

'아이소셀 GN5'는 1/1.57인치 유틸컷 포맷에 1.0μm 픽셀 5000만 개를 구현한 업계 최소 크기의 '듀얼 픽셀'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픽셀에는 빛을 모으는 포토다이오드가 한 개 있는데, '듀얼 픽셀' 제품에는 모든 픽셀이 두 개의 포토다이오드를 탑재한다. 센서의 모든 픽셀이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색 정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질 손실 없이 빠르고 정확한 자동 초점 기능을 구현한다.

장덕현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센서사업팀 부사장은 "고화소 아이소셀 HP1과 한 차원 높은 자동초점 기능을 탑재한 아이소셀 GN5는 차세대 모바일 기기에서의 카메라 트렌드를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고승범(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업과 금융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고승범·정은보 "가계부채부터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취임 후 첫 만남 자리에서 가계부채 등 당면 과제에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현안에 대해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었다. 새 수장들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며 '원팀(One Team)'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친분이 있어 (만남 요청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몸으로(One-body, One-voice)'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양 기관 간 적극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금감원이 금융권 및 이해관계자들과 금융 분야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법상 규정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자"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도 정책과 감독에서 금융위와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화답했다.

▶9면에 계속

김유진 기자 eugene@·문수빈 기자 bean@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3D 정밀측량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해왔습니다.

영토주권 강화, LX공사가 함께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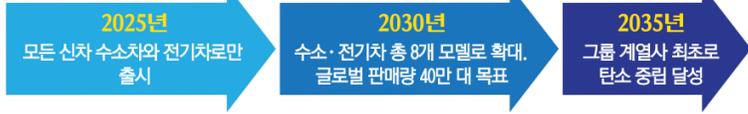




정의선 회장

제네시스, 2030년부터 수소·전기차만 생산

제네시스 전기차 전략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전용전기차 GV60 온라인 공개 전기·수소전기차 투트랙 전략 '전동화 브랜드 비전' 발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25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제네시스 신차는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네시스는 2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퓨처링 제네시스(Futuring Genesis)' 영상을 공개하고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글로벌 고급 브랜드를 표방하며 출범한 제네시스는 세단(G80) 단일 차종에서 SUV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올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정의선 회장은 영상을 통해 "럭셔리 브랜드로 출범한 제네시스는 완성된 라인업과 뛰어난 상품성으로 글로벌 고급 브랜드로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제네시스의 담대한 여정의 시작점이자 제네시스가 혁신적인 비전을 통해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보자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브랜드 비전 발표의 포문을 열었다.

제네시스는 연료전지 기반의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 '듀얼(Dual) 전동화' 전략을 선보였다. 2025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제네시스 신차는 수소전기차 또는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출력·고성능의 신규 연료 전지 시스템 △고효율·고성능의 차세대 리튬이온배터리 등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듀얼 전동화 전략과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그룹사 최초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네시스는 오는 2030년까지

총 8개의 모델로 구성된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 제품군을 완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연간 40만 대까지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전동화 전환과 함께 원자재와 부품은 물론, 생산 공정을 포함한 브랜드의 모든 가치 사슬에 혁신을 도모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구체화했다.

제네시스는 비전 발표와 함께 지난달 공개한 전기차 모델 GV60을 선보였다.

제네시스 브랜드 전동화의 서막을 연 GV60은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최초의 전용 전기차다. GV60을 시작으로 향후 새롭게 선보이게 될 전기차를 통해 고객과 더욱 진정성 있게 상호 교감하는 럭셔리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제네시스의 다양한 미래 콘셉트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B필라가 사라지고, 앞뒤 차 문이 서로 마주 보고 반대 방향으로 활짝 열리는 스테이지 도어(Stage Door) △좌석이 회전하는 스윙블 시트(Swivel Seat) △운전자를 맞이하고 감싸는 무드 조명 △전통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온열 시스템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현장감 있는 음향 시스템 등이다.

제네시스는 디자인 영역의 확장을 표현한 브랜드 필름 '디자인드 포 유어 마인드(Designed for Your Mind)'를 함께 공개했다. 고객이 제네시스와의 교감을 통해 스스로 내면에 집중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8월 소비자 물가 2.6% 올라... 추석 서민경제 '비상'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음 달엔 재난지원금 지급 등 물가 자극 요인도 있어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높은 물가로 서민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통계청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2.6% 상승했다고 밝혔다. 5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도는 상승률이다. 상승폭은 연중 최고치였던 지난달(2.6%)과 같지만, 2% 이상의 상승률이 5개월 연이어 지속된 경우는 2017년 1월~5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채광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3.4% 상승했다. 2017년 8월(3.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일 기준 달걀(중품 30개)의 소매가격은 6621원으로 전년(5430원) 대비 22% 가까이

5개월 연속 2% 웃돌아 달걀 소매가 전년비 22%↑

추석·재난지원금 등 영향 소비자물가 오름세 지속

올랐다. 추석 성수품인 사과(쓰가루, 10개 기준)는 전년보다 25% 오른 1만 9543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배(10개 기준)도 전년과 비교해 19% 비싸졌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재료비가 오르면서 2.8% 상승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20.8%)와 경유(23.5%) 등 공업제품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집세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1.6% 오르면서 2017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2%를 상회하며 예상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서비스 가격 등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측면 상승 압력이 높았고,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 등 공급 측면 상승 요인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9월 이후에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확대 요인인 추석 명절이 있고,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6일부터 시작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이다.

물가가 연이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소비는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2021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강한 소비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전기대비 0.8% 성장했다. 민간소비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3.6% 증가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김혜지 기자 heyji@

2026년부터 병장 월급 '100만 원'

국방부, 급식비 70% 인상

2026년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가 열린다. 장병 기본 급식비도 2024년에는 현재보다 70% 오른 1만5000원 안팎으로 책정된다.

국방부는 2일 병사 봉급 인상과 의식주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올리고, 이후에는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박 3일 동원훈련 기준 올해 4만7000원 수준인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2026년에는 3배 가까운 13만2900원까지 인상된다.

병사의 어학·자격취득 등 자기개발 노력을 지원하는 '개발지원금' 역시 현재 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

전역 시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신선했다.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 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 동안 적립하면,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원리금 754만2000원에 국가지원 251만 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부실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를 내년엔 1만1000원으로 올리고, 2024년에는 1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한국가스공사가 수소도 만듭니다

- 수소 생산기지: 전국 총 25개소 구축
- 수소 연료전지: 500MW 발전소 건설
- 수소 충전소: 전국 총 132개소 구축
- 해의 그린수소 도입: 2040년까지 총 12만톤 수입
- 수소 핵심기술 확보: 총 1,600억원 투자

Everywhere Green Life.
H2 KOGAS

'위드 코로나' 단계적 추진... 12월엔 마스크 벗을까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논의된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환자 수 중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역체계다. 코로나19를 일상 감염병으로 규정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이다.

백신 인센티브 1차 접종자 확대·명절 사적모임 8인 허용 등 거론
소상공인 "고강도 집합금지에 영업 포기 '위드 코로나' 전환" 촉구
정치권 "정부서 구체적 관련 방안 나오면 예산 반영 적극 논의할 것"

① 거리두기 예외 검토

방역당국은 6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적용할 방역 조치를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백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 면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생방위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등)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접종자를 사적모임 집계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1차 접종자까지 확대하고, 연휴기간 전후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6명, 8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0월 이후에는 전면적 방역 조치 완화가 예상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방역체계 개편 검토의 전제로 고령층(60세 이상) 접종률 90%, 성인 접종률 80%를 제시했다. 예방접종이 일정대로 추진되면 10월 말에는 방

역체계 개편 논의가 가능해진다. 전문가 의견수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방역체계 개편은 1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거리두기 하향 등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 완화한 방역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이후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이 마무리되면 방역체계 전환 과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적모임·영업 제한 등 대부분 방역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자영업자 "더 버티기 어려워"

방역체계 단계적 완화는 고강도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방역 조치 수용도 저하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과 관련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직접적 운영 규제는

'위드(with) 코로나' 언제쯤? (예상 스케줄)

9월	방역목표 1차 예방접종률 70%
	방역조치 백신 인센티브 확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
10월	방역목표 예방접종 완료율 70%(노인 90%, 성인 80%),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역조치 백신 인센티브 확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
12월 이후	방역목표 추가접종(부스터샷) 확대
	방역조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사적모임·영업제한 해제, 방역체계 개편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 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소상공인들은 더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

후 24만 명이나 줄어든 반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강조했다.

③ 정치권서도 화두로 부상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내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피로감이 상당히 치명률과 중증환자 숫자에 따라 거리두기를 판단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고, 정부안이나오면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위드 코로나에 적극적인 배경 중 하나는 내년 대통령 선거다.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누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공개적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피로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방역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61명으로 집계됐다. 1차 이상 예방접종률은 57.4%(이하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31.7%다.
고종민 기자 jim@
세종=김지영 기자 jye@
김윤호 기자 uknow@

델타 변이 등 팬데믹 장기화에 글로벌 '코로나 공존' 방향 전환

호주, 백신 접종률 70% 기반
영국·덴마크·이스라엘 등 이어
방역규제 '룩다운' 해제 검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돌파 감염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로의 방향 전환에 나섰다.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면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유지하기보다는 치명률을 낮춘 상태에서 일상생활 회복으로,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그동안 '제로 정책'에 따라 전체 2500만 인구의 절반 이상에 대한 룩다운을 유지하는 등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쳐왔다. 이제는 신규 감염자를 '제로(0)'로 만드는 완전 퇴치 전략을 폐기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통한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는 이날 빅토리아주 멜버른 지역에 내려진 룩다운 조치를 3주 더 연장하면서도, 선명한 정책 선회 의지를 보였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인들은 궁극적으로 룩다운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며 "호주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만 16세 이상 인구 70% 접종 목표에 도달한 뒤 방역 규제를 해제, 두려움 없이 바

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현재까지만 16세 이상 호주인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약 36%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은 이미 코로나19와의 공존을 현실화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국가는 영국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7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람 간 1m 이상 거리 두기, 이벤트 입장 인원수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따로 지침을 권고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으로써 '자유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 역시 같은 달 단계적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하면서 뒤를 이었고, 덴마크도 내달 10일 방역 규제 전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대외에 합류했다.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인 '델타'의 유행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대응해왔던 이스라엘은 신학기 등교 개학까지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퇴치는 사실상 힘들며, 향후 독감처럼 공존하며 관리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치명률을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KB금융그룹
국민의 희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자식 걱정에서 가슴 앓던 이야기가
아이도 부모도 희망찬 이야기로!

KB손해보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켜줄게!





(무)KB희망플러스 자녀보험II

희망을 플러스 자녀 및 부모 납입면제 보험료 환급(2종1형 가입시)
안심을 플러스 부모보험료납입면제대상진단비(특약, 최초1회환)
케어플 플러스 우리 아이 피부를 괴롭히는 아토피 진단비 보장(특약, 최초1회환)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아래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치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납입면제 환급형으로 가입시 기납입한 보장보험료를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 독립특별약관 및 약관상 기재된 '납입면제 제외 특별약관'은 납입면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지급 제외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장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자(주피보험자) 보험료납입면제 사유: ①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애발생 ②질병50%이상 후유장애발생 ③임보장개시일 이후 임(유사임 제외)으로 진단확정(단, 임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1일 이후) ④유사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⑤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⑥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 부모(종피보험자) 보험료납입면제 사유: ①일반상해80%이상후유장애 발생 ②질병80%이상후유장애 발생 ③임보장개시일 이후 임(유사임 제외)으로 진단확정(단, 임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1일 이후) ④뇌졸중으로 진단확정 ⑤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 부모보험료납입면제대상진단비: 부모(종피보험자) 보험료납입면제 사유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시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약관참고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통예금에 대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보호하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보통예금에 기타보통예금을 합하여 100만 원 이하로 한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 초과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기밀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연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차액(상환비용과 계약사실은 어떤 것 상환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주가는 12.3.10.15.20.30년에 최대 갱신 총료 누리는 110%입니다. 또한 갱신사망의 보험료는 연명증기,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갱신사망 사망 면제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사망의 보험료는 최초계약당연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상의필 44082402201.06.22 주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KB손해보험(주) 고객센터: 1544-0114



물류대란 막았다

HMM 임단협 극적 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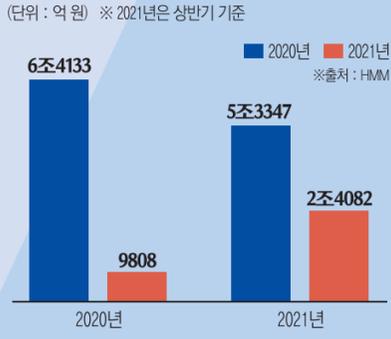
임금 7.9% 인상·보너스 650% 지급 TF 구성 3년간 임금 조정 제도 마련 낮은 연봉과 선원 근로시간 개선 과제



HMM 노사합의안 주요 내용

- 1 임금 7.9% 인상 (교통비 등 인상으로 총액 기준 10.6% 인상)
- 2 보너스 650% 연내 지급
- 3 임금 경쟁력 제고 위해 노사 참여하는 TF 구성

HMM 실적 추이



HMM 노사가 77일 만에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임금 7.9% 인상, 보너스 650%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조 파업으로 물류 대란을 우려했던 수출기업들은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 대비 낮은 연봉, 선원 처우 개선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HMM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2일 오전 8시에 극적 합의했다. 협상을 시작한 지 무려 77일 만이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7.9% 인상(교통비 등 인상으로 총액 기준 10.6% 인상) △경력급 및 생산장려금 650%(연내 지급) 등이다. 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년간 임금 조정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합의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MM 노사가 임단협을 극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수출 대란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애초 노조는 교섭 결렬 시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HMM 양 노조인 육상·해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해원노조는 선원들로부터 받은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일부 수출기업들은 HMM 노조 파업을 대비해 일찌감치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HMM이 파업하면 사실상 수출길이 막혀 버리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들은 중국만 들러도 만선이 돼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HMM 노사 합의로 기업들은 예정대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수출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 HMM마저 파업을 강행했다면 기업들은 수출품을 제때 현지에 공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안도했다.

HMM 또한 재정적 손실을 피하게 됐다. HMM은 지난달 24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노조가 3주간 파업하면 (HMM이 속한) 디얼라이언스에 미치는 예상 피해액은 5억8000만 달러(약 6729억 원)”라고 호소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HMM은 자체 물동량 외에도 동맹 선사들의 물동량도 운송한다”며 “이번 파업을 막음으로써 HMM은 회원사들로부터 신뢰를 지키게 됐다”고 덧붙였다.

합의가 이뤄졌지만, HMM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

제는 남아 있다.

임금 인상 조치에도 HMM 직원 평균 연봉은 최대 8700만 원 받는 다른 해운사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다. 임금 정상화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 방식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진만 HMM 육상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잠시 투쟁을 중단하지만, 만약 사측이 (임금 인상 문제에서) 과거와 같은 태도를 보이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원들의 처우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선원법에서는 선원들이 한 달에 총 313시간 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법정 근로시간(174시간)의 약 1.8배에 달한다. 313시간 이상 일해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HMM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더욱 힘들어졌다”며 “기존에는 2개월에 한 번씩 부산항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승선하는 날부터 하선하는 날까지 한 번도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은 “쟁의행위를 제한할 정도로 선원이 그렇게 중요한 직업이라면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선원법은 옛날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현세대 기자 yeongdai@

의료대란 피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감염병 전담 병원 인력기준 마련 간호사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합의 핵심 이해당사자 빠져 실행 미지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전격 철회

6월 23일	보건의료노조, 9월 산별 총파업 예고
8월 17일	12개 지부(136개 의료기관) 노동쟁의조정신청
23일	보건노조-보건복지부, 10차 노정 실무교섭
26일	11차 노정 실무교섭, 11시간 교섭 끝에 결렬
27일	노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파업 가결
9월 1일	노조-보건복지부,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협상 시작
2일	보건노조-보건복지부, 전날부터 이어진 11시간 협상 끝에 막판 극적 합의

※출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중앙

핵심 합의 내용

- 1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 9월 까지 마련
- 2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제도화 2022년 1월 시행
- 3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 4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 5 교육전담간호사제 및 야간간호사 확대 추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2일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간호인력 처우개선 단계적 추진〉=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제13차 노정협의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9월까지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간호사 등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해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지급을 제도화한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예산 확보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한다.

더불어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를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간호사 교대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내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설립한다. 또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중상사고수습본부 백브리핑에서 “좀 어렵게 진통을 겪었지만 대응적 차원에서 서로 합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며 “국민의 걱정을 한결 덜어드리게 됐다고 판단한다. 향후 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의 해결과 합의한 내용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한 없는 합의… 실행 가능성 미지수〉= 다만 이번 합의는 한계가 뚜렷하다.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빠져 ‘권한 없는 합의’란 점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회 등 분야별 직능단체가 아닌 보건의료기관 소속 근로자단체다. 따라서 특정 분야나 직능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번 합의문에는 보건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뿐 아니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사제도 도입 등 의사 증원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의사 증원은 이미 이해당사자집단인 의협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보건의료노조와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의료비 지원 강화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예타 제도 개선은 기획재정부 동의를 각각 필요하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국회 입법 사안이다.

합의를 둘러싼 갈등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2020년 9·4 의정협 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의사 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업 예산들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국회 동의를 필수적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예산 투입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정협의 등을 거치게 돼 있어서 당정에서 여러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타 부처와 이견도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LG화학, 단석산업과 국내 첫 ‘바이오 오일’ 공장 설립

친환경 원료 공급 기반 강화

LG화학이 친환경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전문기업 단석산업과 합작공장을 설립한다.

LG화학은 경기도 시흥시 단석산업 본사에서 노국대 석유화학사업본부장과 한승욱 단석산업 대표이사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HVO(수소화식물성오일·Hydro-treated Vegetable Oil)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HVO는 폐식용유, 팜부산물 등의 식물성 원료로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 오일이다. 저온에서도 얼지 않는 특성이 뛰어나 차량용뿐만 아니라 항공유 및 석유화학 원료로도 사용 가능하다.

양사는 내년 1분기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생산공장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 HVO 공장이 설립되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 합작 공장은 최근 LG화학이



LG화학 대산공장 전경.

발표한 대산사업장 10개 신설 공장 중 하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친환경 항공유·디젤 사용 의무화로 HVO의 세계 시장 수요는 2020년 600만 톤 규모에서 2025년 3000만 톤 규모로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LG화학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식물성 원료에 기반한 바이오 제품(Bio-balanced)을 확대하고 친환경 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차세대 바이오 연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단석산업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이번 합작공장 설립이 성사됐다.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LG화학은 HVO 내재화를 통해 바이오 SAP(고흡수성수지)·ABS(고부가합성수지)·PVC(폴리염화비닐) 등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LG화학은 친환경 바이오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대표적 수단인 ISCC Plus 국제 인증 제품을 연내 3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LG화학 노국대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제품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지속 전환해 관련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수 기자 citizen@

농지연금 만 60세에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 농업인 우대상품도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한다.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만 65~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30년 이상)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지급

기준도 완화해 농지가격의 15% 미만에서 예외적으로 15% 이상 30%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다. 가입자가 원하면 상품 전환과 연금지출액 중도상환도 허용한다. 아울러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중소 건설·제조현장 10곳 중 6곳 추락·기계 끼임 '무방비'

정부, 1만3000곳 현장점검 7996곳 '3대 안전조치' 미준수 '이것만 지켜도 사망사고 줄 것' 내년 중대재해법 안전관리 지원

중소 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 절반 이상이 추락 위험 및 끼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오후 7~8월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건설업) 예방수칙 및 끼임사고(제조업) 예방수칙 이행,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총 67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국 1만3000여 개의 중소 규모 제조·건설업 등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상 중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은 7900여 곳(64.6%)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685곳 중 2141곳(58.1%)이, 건설업은 7995곳 중 5719곳(67.5%), 폐기물 처리업 등 기타업종은 224곳 중 136곳(60.7%)이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지적을 받은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

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 고용부는 지적을 받은 7900여 곳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위험 요인이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과 대부분 일치했다"며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별목작업에 대한 상시 순찰·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112% 증가한 폐기물 처리업은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꼽힌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 벌써 30명이 추락 재해를 입었다.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별목작업의 경우 올해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175% 늘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또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비해 올해 10월 하순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최첨단 기술이 집결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각종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됨에 따라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일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버추얼 스튜디오 '브이에이 스튜디오 하남'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원장〉 조성욱 “중소 기술 탈취 무관용 대처”

울산 車부품사 대표들과 간담회 “1차 협력사 불공정 행위도 점검 하도급 거래 모범기업 용자 확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며 "또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소송 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인 린노알리늄에서 중소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그는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바

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부와 협의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용자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공급망가가 인상됐음에도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광해광업공단 15일 출범식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 광물자원 민간개발 지원 등 주업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준비가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7차 공단설립 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항을 의결한 후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해광업공단 법과 이 법 시행령을 준수해 임원 수, 임원 임면, 임직원 보수, 해외자산계정,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주요업무를 규정한 정관을 의결했다.

주요업무는 광해방지 및 복구, 석탄산업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폐광지역 대체

산업 용자, 광물자원 민간개발지원, 광물자원 개발자금 용자 및 광물의 비축·매매 등으로 정했다.

조직은 통합 전 6본부·1원·1단·1소·37처실·5지사·3센터·3사무소(57개)에서 4본부·1원·1단·29처실·5지사·3센터·3소(46개)로 개편했다. 사옥은 광물공사 사옥에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신설 공단 출범식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설립위원장인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신설공단 사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 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상반기 44배〉

유럽 고병원성 AI 급증, 정부 방역 강화

겨울 철새 통한 유입 가능성 커 정부, 전국 농장 취약점 개선 철새도래지 예찰·정기검사도

정부가 최근 유럽과 아시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하면서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상시 예찰을 강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 AI 발생 건수는 113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6건과 비교해 44배 급증했다. AI 발생 기간도 13개월로 이전 3개월보다 대폭 늘었다.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7개국에서 44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14건과 비교해 3.1배에 달한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라오닝성 야생조류에

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AI 바이러스 유행도 다양해 유럽에선 H5N8(80.1%)·H5N1(8.4%)·H5N5(3.9%)형 등 6종, 아시아에서는 H5N8(93.1%)·H5N1(2.3%)·H5N6형(2.3%) 등 4종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 H5N8형과 H5N6형이 동시에 발생했던 2016년과 2017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8개월간, 419건)이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가금농가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기간(10월~2022년 2월) 이전부터 방역 취약 요인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가금농장(4900여 호) 대상 방역시설 현장점검에 더해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병행 시행한다. 특히 1차 점검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설 연휴였던 2월 1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가축방역상황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에도 AI 확산 우려가 커지자 가축방역 관리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서 미흡 평가를 받은 농장은 추가 점검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장은 사육제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검역본부·지자체·생산자단체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1년 AI가 발생한 모든 농장(109건)

에서 소독·방역시설 관리 미흡, 기본적인 방역 수칙 미준수 등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사전 예방조치의 제도화와 현장 중심 방역 조치를 위해 전문가·생산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 규정과 매뉴얼도 정비한다. 특히 철새 도래지 예찰과 가금농장 정기검사 등 예찰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국내로 유입되는 AI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예찰 시행, 가금 정기검사 주기 단축 등 상시 예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 야생철새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환경부와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黨선관위, 경선룰 수정 권한” 이준석, 정홍원에 힘 실었다

〈국민의힘 선관위원장〉

윤석열 캠프 “무조건 따른다”
홍준표 측 “경준위 정한대로”
대선 주자 간 논쟁은 계속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간 불거진 ‘역선택 조항’ 논란에 이준석 대표가 나섰다. 이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준비위원회 의원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며 정홍원 선관위원장에 힘 실었다. 의원들을 향해 대선 경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후보들을 귀한 자산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최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비추인된 경준위안을 수정하고 적용한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공정과 중립한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신속히 내

서 이 논쟁이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이 같은 말을 꺼낸 배경에는 최근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두고 대선 주자 간 공방이 정 위원장을 향한 질타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처음도 나중도 공정이라는 가치를 최고 목표로 삼겠다. 상식에 맞고 순리에 부합한다면 소의를 버리는 용단도 갖겠다”며 “개인의 영달보다 역사에 칭송받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달리해 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도 “명심할 것은 이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경선은 비빔밥, 샐러드 불에 비전되는 것처럼 다양함이 조화를 이룰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주시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후보 한분 한분을 전부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해주시고 혹

시 여당의 불합리한 공격이나 지적이 들어올 때 일처럼 맞서주시길”이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당부에도 논란에도 주자들 간 논쟁은 식지 않았다. 윤석열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통화에서 “무조건 결정에 따른다”면서도 “(찬성 입장이) 바뀔 게 없다”고 얘기했다. 반면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경준위에서 정한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유승민 캠프 종합상황실장도 “선관위가 굳이 바꾸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모든 후보가 그것을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선 여론조사와 통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역선택에 관한 과학적 입장을 듣는 것”이라며 “일종의 의견 청취”라고 설명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왼쪽)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산으로 가는 언론법 협의체

5개 언론단체, 불참 선언
민주당 뭉 인사 교체 검토
野 “차라리 조국 넣으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서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했

다. 이에 대한 협의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8인 협의체의 활동 기한이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까지로 한정된 상황에서 구성마저 브레이크가 걸릴지 주목된다.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총들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뭉으로 추천할 전문가 2명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언론계 인사나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2명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뭉 2명에 강경 친문인 김용민·김종민 의원이 배치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조국 사수 부대원,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Tel. 1661-9316 | dieuamour.co.kr



DIEUAMOUR
No. 3101 Bellezza Line

‘2주 잠행 끝’ 김동연 다음 주 대선 출정식

국민삶 개선 경제 해법 밝힐 듯

대권 도전에 나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주간의 잠행을 깨고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다음 주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식을 진행하고 국민 경제 개선 방향 등을 담은 내용을 발표할 전망이다.

김 전 부총리는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 주로 예정한 대통령 출마 선언식을 준비 중”이라며 “직접 출마 선언문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월의 첫날 아침 일찍 국립 서울현충원을 다녀왔다”며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이란 짧은 어구에 담아 봤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가 공식 발언을 재개한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 김 전 부총리는 2주간 잠적에 대해 “출마 결심은 이

미 고향에서 밝혔지만, 제 비전을 국민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전하기 위해 다듬고 또 다듬고 있다”며 “기존 정치권의 방식과 다르게 해 보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문 내용에는 국민 삶의 개선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총리가 경제 전문가인 만큼 구체적인 경제 정책은 물론 해결책까지 제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전 부총리 측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들을 짚고 있다”며 “전 세계 10위권,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 4만 불을 간다고 그러는데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져 가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하나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상 기자 jooon@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RE100] 가입

지구에게 100점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가 RE100에 참여합니다

사용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조달하는 친환경적인 노력으로

반도체 기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고민을 아끼지 않는

ESG경영 실천 기업이 되겠습니다



“中시장 잠재력 포기 못해” 바이든 회유하는 美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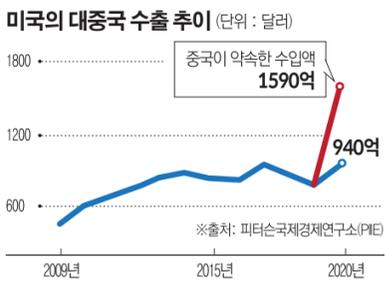
“7개월 넘게 대중정책 확립 못 해” 기업·투자자, 관세 철폐 거듭 촉구 블랙록·골드만 “中투자 지속” 조언

중국의 전체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자국 기업에 대한 탄압이 계속 강도를 더해가지만,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 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 중국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는 한편, 관세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미국 제조업협회는 전날 바이든 정부에 조속히 대·중 무역전략을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 주도로 30여 개 미국 경제단체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지난달 초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등 재계의 불만에 찬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된 대중 무역정책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전 정부가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협정을 연장할 건지, 무역협상을 재개할 건지에 대한 신호조차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무역 갈등을 일단락한 바 있다. 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를 보류하는 대신, 중국은 앞으로 2년간 2000억 달러(약 232조 원)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면세가 일시 적용됐던 분야는 기한이 만료돼 관세 철폐를 맞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비즈니스



스협의회장은 “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는 불확실성”이라면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지,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 부대표인 찰스 프리먼도 “구체적인 대중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 재계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들 단체가 중국에 대한 경험이나 선입견이 없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무역전쟁은 효과가 없으며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가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무역정책 확립 촉구는 물론 관세 철폐를 위한 막대한 로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중 관세로 미국 산업 전반의 제조·생산·서비스 비용이 상승했고, 해외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들은 정부가 중국산 관세를 낮추면 현재 미국인이 직면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상승 압박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과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CNN에 따르면 블랙록과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 월가 거물들은 고객에게 여전히 중국 투자를 조언하고 있다. 최근 중국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너무 지나칠 뿐 아니라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이 여전히 강력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블랙록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규제의 강도는 변할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은 경제 안정과 규제에 대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주택대출만 8900兆’ 中 집값버블 경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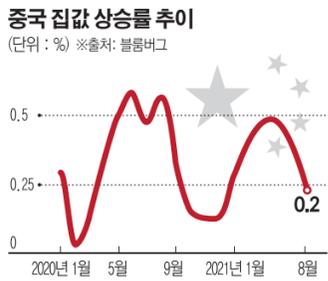
8월 신규 주택 가격, 전월 대비 0.2% 상승... 中 정부, 부동산 규제 쏟아내

최근 중국 집값 상승세가 5개월래 가장 큰 폭으로 둔화했다. 중국 정부가 주택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올해 들어 규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집값의 급격한 하락은 중국 경제의 장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따르면 중국의 집값 버블 폭락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부동산 리서치 연구소 차이나인텍스아카데미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8월 중국 10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상승률 0.35%에서 0.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 8월 신규 주택 가격은 3.51% 상승해 전월 3.81%에서 둔화, 작년 12월 이후 최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의 집값 상승 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중국 당국이 집값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구입을 규제하고 모기지율



을 인상하면서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중국 주택 시장은 이후 빠르게 반등에 나섰다. 투자자들이 주택을 글로벌 인플레이션 헤지수단으로 여기면서 사재기에 나선 영향이다.

올 들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중국 지도부가 잇달아 주택 시장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정 부총리도 “지역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졌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대출 한도 제한을 시작으로 올 1월 모기지율을 높여 은행 문턱이 높아졌다. 5월 선전, 6월 상하이에서 각각 모기지율을 인상했고 대출 실행 속도도 늦췄다. 광저우는 지난달 31일 주택 판매 ‘참고 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상하이와 선전 등 10개 대도시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집값 버블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반대로 붕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1995년 5%에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의 부동산 부문 대출 규모는 50조 위안(약 8900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계의 모기지 대출이 35조 7000억 위안, 개발업자 대출이 12조 4000억 위안이다. 블룸버그는 자칫 선부른 시도가 의도하지 않은 경제 연쇄 파급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텍사스 ‘낙태제한법’ 반대 시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1일(현지시간) 여성들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낙태제한법’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낙태 금지 시기를 기존의 임신 20주에서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로 앞당겨 일명 ‘심장박동법’으로도 불린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밤 5대 4로 이 법의 차단을 거부했다. 오스틴/AP연합뉴스

아마존, 전세계 대상 5만5000명 채용

美서만 4만 명 모집... 페이스북 전체 인력과 맞먹는 수준

미국 최대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전 세계적으로 약 5만5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에 나선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부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부터 영화 등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아마존스튜디오, 우주 인터넷망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카이퍼(Project Kuiper) 등 다양한 사업에서 대규모 인재 채용에 나선다. 이 중 4만 명은 미국 현지 220개 지역에서, 나머지 1만5000명은 캐나다, 인도와 독일, 일본 등 전 세계에 현지 법인을 통해 채용한다.

미국 내 채용 규모만 놓고 보면 회사가 설립한 이래로 역대 최대 고용 규모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아마존의 이번 신규 채용 규모가 구글 인력의 3분의 1에 달하며 페이스북과 비교하면 전체 직원에 맞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15일 채용박람회를 열어 모집 직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구직자들을 모은다.

WSJ는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채용이 7월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 앤디 재시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이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WSJ는 “대규모 신규 채용은 인공

지능(AI) 스피커 알렉사에서부터 오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오프라인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존의 지속적인 성장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시 CEO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매유통, 클라우드, 광고, 카이퍼 프로젝트 등의 사업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사라지거나 변한 일자리들이 많고 달라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서 두 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아마존의 미국 내 직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95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13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물류 부문 종사자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마존은 11번가와 손잡고 한국 시장에 진출, 지난달 31일 해외직구 서비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공식 오픈했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는 디지털, 패션, 생활용품, 도서 등 수천만 개 이상의 아마존 미국(Amazon US) 판매 상품을 11번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검색·주문·결제할 수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美 오포에도 OPEC+ “감산 유지”

“변이 확산에 증산은 시기상조”...美 요구 거절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 OPEC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협의체 ‘OPEC플러스(+)’가 월간 원유 생산 수준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존 감산 완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각국 OPEC+ 석유장관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약 한 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하고, 공급량을 계속해서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늘리기로 한 계획을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OPEC+는 회의 이후 낸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펀더멘털은 견고해졌고 경기 회복세도 한층 명확해졌다”며 “회복 가속화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원유 재고 역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OPEC+는 지난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최악의 시기에 실시했던 전례 없는 감산을 되돌리는 과정에 있다. 이미 감산 폭의 약 45%에 대한 생산을 복구했다. 나머지는 내년 9월 말까지 서서히 원래대로 되돌릴 계획이다. 앞서 7월에는 작년에 합의한 감산 완화 방식으로 8월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을 증산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같은 결정은 추가 증산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현행 감산 완화로는 역부족이라며, OPEC+에 경기 회복을 위해 생산량을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OPEC+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아직 타격을 받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증산에 속도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소폭 증산 후 점진적으로 늘리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요 수입국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 추이



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행동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전월 대비 하루 10만 배럴씩 하향 조정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달 델타 확산으로 인해 서비스 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OPEC+가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1% 오른 배럴당 68.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1.59달러로 강보합세였다. 두 벤치마크 모두 올해 약 40% 상승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카카오 클레이튼 '가상자산 大戰' 네이버 판정승

라인 가상자산 '링크' 韓상장 불구 클레이튼이 거래금액 17배 앞서

그라운드X, 신한銀과 사업 협력 퇴직연금·실물결제 등 만지작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둘러싼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리전에서 카카오가 첫 판정승을 거둔 가운데,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국내의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네이버 일본 관계사인 라인은 지난달 13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링크(LN)'를 상장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지난 5월 14일 빗썸에 '클레이튼(KLAY)'을 상장한 지 세달 만이다. 라인은 현금인 아닌 비트코인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BTC 마켓에, 클레이튼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원화 마켓에 각각 상장됐다.

기존 라인은 해외 시장에만 주력해왔



다. 라인의 링크는 그간 미국의 비트프론트(BITFRONT), 일본 비트맥스(BITMAX) 두 곳에만 거래를 지원했다. 비트프론트와 비트맥스는 모두 라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다.

라인이 국내 쪽으로 방향을 튼 이유로 한 국은행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

폐) 사업 수주 실패가 꼽힌다. CBDC 사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네이버(라인) 내부에서 충격이 상당했다"라며 "당연히 카카오보다 기술력이 우위일 줄 알았는데 기술 접수가 더 늦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입지를 다지는 게 향후 (블록체인) 사업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CBDC 용역 개발 결과에서 그라운드X는 기술점수 85.4004 점, 라인플러스는 84.6223점을 받았다.

한국은행의 CBDC 평가 과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카카오가 국내에 구축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의 생태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라인의 국내로의 선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2일 16시 기준 링크의 24시간 거래금액은 41.299BTC(약 24억 원)다. 클레이튼의 같은 기간 거래금액인 424억 원과 17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라운드X가 선점한 국내 생태계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라운드X는 이미 국내에서 유수의 은행, 언론사 등과 제휴하며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향후 실물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라운드X는 지난 6월 신한은행을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의 새로운 멤버로 맞

았다. 2017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해 해외파생상품, 퇴직연금, 정책자금대출 등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축해 온 신한은행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LG전자, GS홈쇼핑뿐 아니라 글로벌 전자결제 기업 '월드페이'와 손잡고 있다는 것 또한 클레이튼이 실물 결제와 맞닿은 것으로 비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라운드X 관계자는 "현재 그라운드X는 클립 드롭스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당장 실물 결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그라운드X는 글로벌 사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 블록체인 전문회사 '크루스트(Krust)'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금융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카카오 창업 원년멤버인 송지호 카카오공동체성장센터장이 대표를 맡았고, 카카오투부분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는 신정환 최고기술책임자(CTO)도 합류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코로나 지원 잘했는데... 경영평가 'A' 머문 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국정과제 경영실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책 금융과 관련한 새로운 평가 지표를 넣었지만, 수은의 등급은 지난해와 같았다. KDB산업은행은 지난해보다 한 등급 높은 S등급을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달 3개의 국정과제에 대해 2020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산은은 S등급, 수은과 IBK기업은행은 지난해와 똑같이 A등급을 받았다.

금융위는 매년 국정과제들을 대상으로 경영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자는 10명의 경영예산심의위원으로,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 소속 위원 4명, 경영예산심의위원장 추천 인원 5명, 기획재정부 추천 인사 1명으로 구성된다. 경영예산심의위원장은 금발심 소속 위원 중 1명이 맡는다.

경영 평가 결과는 S, A, B, C, D, E로 총 6개의 등급으로 매겨진다. 이는 국정과제 직원들의 성과급 인상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S등급의 경우 2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며, A등급은 180%, B등급은 150%, C등급은 110%

평가지표에 '위기대응' 추가 산은만 작년보다 한 단계 상향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전 '적극적 위기 대응 지표'를 신설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정과제행들에 금융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경영 관리 △사업 등 2가지 부문에 대해 심사했다.

또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수익성, 건전성 지표를 반영하지 않았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이익목표달성도,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을 삭제했다. 또 총인건비 인상률도 산정에서 제외했다. 국정과제행들이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다 보면 수익성과 건전성을 금융 지원과 함께 챙기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과 만나 정책 금융 공급 실적을 중심으로 기관 경영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은의 지난해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과 추가

유동성 공급이었다. 추가 유동성 공급이란 △일반 수출입 여신(수출 자금 대출, 수입 자금 대출, 해외 사업 관련 대출) △긴급 경영자금 대출 등이다. 수은은 지난해 28조5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목표를 세웠고, 실제로 57조6000억 원을 공급했다.

수은은 당초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19조6000억 원,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해선 8조9000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15조7000억 원, 추가 유동성 공급 41조9000억 원을 지원했다.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은 목표보다 적게, 추가 유동성 공급은 목표보다 많이 지원한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안 좋아져서 업체들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만기 연장보다 더 많은 자금 수요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신규 유동성 공급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은은 지난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해 대한항공과 두산중공업을 지원했다. 또 일반 대출 71조3000억 원, 투자 11조4000억 원 등 총 91조1000억 원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수빈 기자 bean@

노조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직원 처우 문제, 기재부와 논의"

직원들 "전임 원장과 다른 모습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 잡아줄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노조와 만나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논의해나간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 직원들은 정 원장에 대해 '전임 원장과는 다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은보 원장은 지난달 노조와 취임 후 첫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수석부원장,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노사관계 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신입 원장에 설명했다. 우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회사 예산으로

지급하고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점과 채용 비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근무하는 이중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분장조정으로 인한 민원 폭증, 전임 원장 시절 제재 수위에 관한 얘기도 오갔다. 노조는 평가 상여금, 복지 축소, MZ세대 직원들의 이탈, 변호사 탈출리시 등이 이어지는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임금 5% 복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융공기업은 과거 2009년 때 임금을 일괄적으로 5% 삭감한 바 있다. 이후 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기관은 삭감분을 보전해줬지만, 금감원은 아직도 복원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채용 비리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왜 회사예산으

로 지급했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문제는 금융위에게 돌린 전임 원장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또 직원들의 복지 회복을 위해서는 기재부에도 명분을 쥐야 하므로, 추후 노사협상 및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묵은 인사 적체 문제를 비롯해 윤석현 전임 원장이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직원 2명을 승진시키는 등 금감원 인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실망을 느끼고 돌아서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기재부 출신 신입 원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아줄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저축은행중앙회-부산신보, 협약보증 '맞손'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산 소재 3개 저축은행(IBK, BNK, 고려)과 부산신보보증재단 간 '저축은행 출연부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서울신보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이은 저축은행과 지역신보보증재단과의 두 번째 협약이다. 사진은 박재식(왼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김승모 부산신보보증재단 이사장이 2일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저축은행중앙회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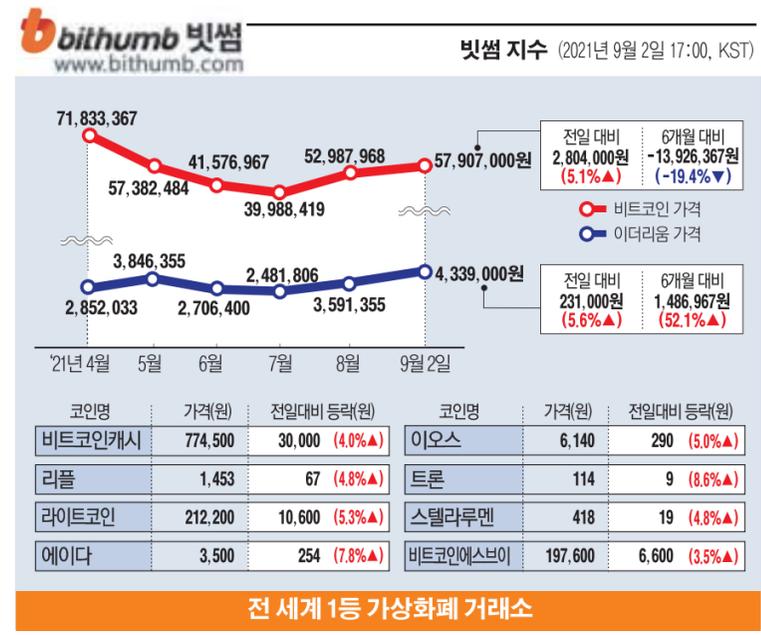
▶1면서 계속

정 원장은 "금감원이 시장과 현장 가까이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정책 결정 및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시장과 호흡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금융시장에 뿌리내리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회동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양 기관은 키코(KIKO)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금감원의 예산

독립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행정고시 28회 동기이자 오랜 시간 경제관료로 일해온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양 기관의 수장으로 만난 만큼 이전과는 다른 긴밀한 협력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우리 경제·금융을 둘러싼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에 누적된 잠재리스크의 뇌관을 미리미리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대 오른 車 온라인 판매... 관건은 '고용 불안 해소'

현대차, 가격·소비 트렌드 고려
캐스퍼' 100% 온라인 판매하지만
노조 "영업노동 배제 취지" 반발
한국지엠도 차종 확대 엄두 못내

현대자동차가 새로 선보인 1000cc급 경형 SUV '캐스퍼'를 100% 온라인 판매하기로 했다. 판매사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향후 온라인 판매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출시될 캐스퍼는 온라인을 통한 고객 직접판매(D2C) 방식으로 판매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전날 캐스퍼 전용 예약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얼리버드 예약(사전계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구매 희망자는 이달 중 얼리버드 예약이 시작되면 예약금을 내고, 공식 출시 이후에 사양을 확정할 뒤 본계약을 맺을 수 있다.

현대차가 특정 차종을 온라인으로만 판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의 얼리버드 예약 일정.

출처 캐스퍼 온라인 구매 사이트

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래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차량 판매 방식은 노조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캐스퍼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위탁 생산하는 차량이라 이 조항을 비껴갈 수 있었다. 캐스퍼는 상생형 일자리로 출범한 GGM이 생산만 책임지고, 현대차가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구조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판매위원회는 "사 측이 인터넷 판매방식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향후 판매방식을 인터넷 판매와 흡소핑 등 비대면으로 영업노동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판권과 물량은 조합원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안정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 밝혔다.

사 측은 대당 1000만 원 초중반인 캐스퍼의 가격을 고려하면 대리점을 통한 판

매가 수익성이 없고, 주요 고객층인 MZ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고려해 온라인 판매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노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난달부터 '특별 노사협의'를 열어 온라인 판매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고용을 둘러싼 우려 탓에 국내 완성차 업체는 쉽사리 온라인 판매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GM)이 지난달 출시한 전기 SUV '볼트 EUV'를 업계 최초로 온라인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웨보레 대리점판매연합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기에 가능했다. 노조의 반발이 예상돼 다른 차종으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국내에서 판매사원 없이도 모든 물량을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현대차도 지난해부터 유럽과 인도 등 해외에서 '클릭 투 바이(Click to Buy)'라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기아도 인도와 러시아에 유사한 판매 시

템을 갖췄다. 이 때문에 판매 현장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국내 완성차 시장에 온라인 판매가 확대될 수 있을지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존 판매 사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거나 온라인 채널과 협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토요타는 지난해 일본에서 온라인 판매 사이트 '마이 토요타(My Toyota)'를 확대 개편하면서 기존 판매 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온라인으로 구매 상담을 제공하는 점은 타사와 유사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채널 간에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기존 딜러와 협업을 유도했다. 전기차 ID.3 모델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폭스바겐 역시 기존 판매사원을 통해 구매 상담과 시승,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보는 판매 현장에 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시스템반도체 화질·픽셀 초격차

'소니 아성'에 도전장 던진 삼성전자

2억 화소 이미지센서 첫선
반도체 초미세공정 접목 결실
소니와 점유율차 10%P 줄일듯
자율주행 등 차량용 라인업 확대



삼성전자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GN5(왼쪽)'와 '아이소셀 HPI'.

삼성전자가 2일 출시한 이미지센서 신제품 2종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신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화소수는 극대화하고, 픽셀 크기는 작게 만들어 얇고 작은 스마트폰에서도 DSLR(Digital Single Lens Reflex) 수준의 카메라 기능을 구현한다.

특히 초고화소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빠른 속도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 삼성은 '아이소셀 HMX'를 출시하면서 업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돌파했다. 지난 6월에는 업계 최소형 픽셀인 0.64μm 크기 '아이소셀 JN1'을 선보였고, 불과 3개월 만에 사상 처음으로 2억 화소 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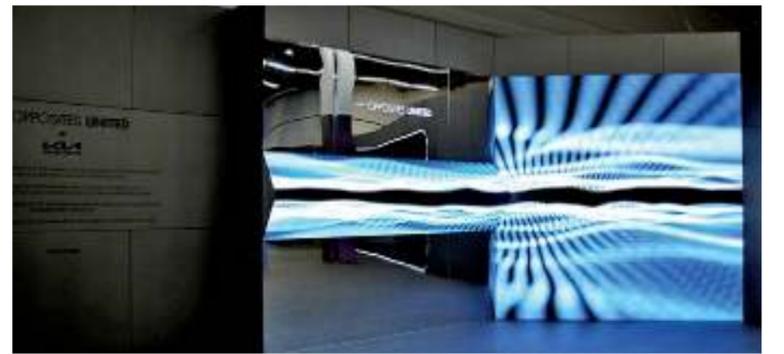
넘은 '아이소셀 HPI'를 출시했다. 삼성의 초미세공정도 빛을 발하고 있다. 스마트폰처럼 크기가 한정된 기기에서 중요한 것은 픽셀 크기를 더 작게 만드는 기술이다. 세계 최소 크기의 듀얼 픽셀 '아이소셀 GN5'가 초미세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이미지센서 신제품을 앞세워 이 시장 1위 업체 소니를 본격적으로 따라잡을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TSR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해 45.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19.8%로 2위다. 다만 2019년보다 소

니와의 점유율 격차를 5%포인트 이상 줄였다. 올해는 격차가 10%포인트대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이미지센서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량용 제품군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최신 제품 '아이소셀 오토4AC'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어두운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출구처럼 밝기가 크게 달라지는 환경에서도 잔상 없이 고화질의 영상을 인식한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모바일에서 인정받은 이미지센서 역량을 전자산업과 결합해 공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대에서 요구되는 빠른 통신·강력한 연산 기능 등이 탑재된 차별화된 이미지센서로 자동차 시장에서도 성공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카메라, 자율주행 등으로 차량용 이미지센서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조형물로 엮보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픈잇 유니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반영한 예술작품을 전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전시관에 설치된 '디자인 아이덴티티' 모뉴먼트 디스플레이.

기아가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디자인 철학 '오픈잇 유니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반영한 예술작품을 전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전시관에 설치된 '디자인 아이덴티티' 모뉴먼트 디스플레이. 사진제공 기아

미래 준비 나선 LG, 신기술 발굴 가속

글로벌 스타트업 대상 공모전
최대 10개 팀 선정 230억 지원

LG전자가 미래준비를 위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는 이달 1일부터 글로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미래를 위한 과제(Mission for the Future)'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환경친화적이면서 더 건강하고 스마트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 공모전은 앞으로 매년 진행될 계획이다.

단계별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가 채택된 팀은 북미이노베이션센터와 함께 아이디어

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6월 말 최대 10개 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최종 선정된 팀들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대 2000만 달러(약 230억 원)를 투입한다. 선정된 팀은 LG전자를 포함해 LG전자의 파트너사와도 교류할 수 있고, 멘토링, 파일럿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커넥티드 헬스(Connected Health) △e-모빌리티 인프라 확장 및 전동화 활성화 방안(Energizing Mobility) △LG 씬큐(LG ThinQ) 플랫폼 기반의 커넥티드 홈 관련 스마트 라이프스타일(Smart Lifestyles) △메타버스(The Metaverse) △사람, 사회,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LG의 혁신 철학에 부합하는 새로운 혁신(Innovation for Impact) 등 5가지 주제에 맞춰 진행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대한항공, 고용지원금 연장 없어도 유급휴업

대한항공이 이달 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으로 유급휴업을 유지한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대한항공은 올해 12월까지 현재 휴업 조건과 같은 수준으로 직원들의 유급휴업을 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 유급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하지만 30일 정부의 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 기업은 임금의 절반가량만 지급하는 무급휴업으로 전환하거나,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 유급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친환경 선박 퍼스트무버로" 현대중, 조선산업 청사진

기업공개 앞두고 미래 비전 발표

현대중공업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글로벌 조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은 2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갖고 '친환경 선박의 퍼스트무버, 선제적 투자 통한 초격차 달성'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비전 달성을 위해 △친환경 미래 선박 기술 개발 △스마트 조선소 구축 △해상 수소 인프라 투자 등을 미래 핵심 3대 사업으로 선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최대 1조8000억 원 규모인 IPO 조달자금 중 약 7600억 원을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선박 및 디지털 선

박 기술 개발에 3100억 원,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3200억 원, 수소 인프라 분야에 1300억 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수소 및 암모니아 선박, 전기추진 솔루션, 가스선 화물창 개발 등에 집중해 고부가가치 선종의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선박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자율운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2030년까지 생산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조선소도 구축해 효율적인 생산체계와 안전한 야드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상 수소 인프라 시장 선점을 위해 업계 최고 조선해양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 신재생 발전 및 그린수소 생산, 수소 운송 인프라 분야에 투자도 확대한다.

현대중공업은 비전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신규 수주 증가로 선수금 유입이 늘어나며 순차입금 비율은 34.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주요 조선사 평균인 107.9%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IPO를 통해 전체 자본의 20% 규모인 1800만 주를 신주 발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그룹 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일~3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 후 6일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7일과 8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은 진행해 1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컴 인공지능 '세종1호' 내년 우주로

국내 첫 지구 관측용 민간위성 무게 10.8kg으로 저궤도 탐사 "올인원 영상 데이터 시장 진출"



최명진 한컴인스페이스 대표가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초소형 저궤도 인공위성인 '세종 1호'를 소개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한컴) 그룹이 2022년 상반기 지구 관측용 광학위성 '세종 1호'를 쏘아 올린다. 한컴그룹은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드론과 장거리 감시카메라까지 활용해 영상 수집부터 분석, 판매까지 아우르는 '올인원' 영상 데이터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컴그룹의 우주·항공 전문기업 한컴인스페이스는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2년 상반기 국내 첫 지구 관측용 민간위성인 '세종 1호'를 발사한다고 밝혔다. 7가지 파장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세종 1호는 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30cm, 무게 10.8kg의 저궤도 초소형 인공위성으로, 지상으로부터 500km 궤도에서 90분에 한 번씩 지구를 순회하게 된다. 5m 해상도의 관측 카메라도 탑재했다.

한컴그룹은 세종 1호에 이어 2023년 3~5호까지 순차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성장세에 따라 최대 50기 이상의 군집위성도 발사·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구 관측 영역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취득 소요 시간을 단축해 글로벌 서비스로의 확장을 꾀한다.

인공위성을 바탕으로 한컴그룹은 인공위성과 드론, 지상까지 아우르는 올인원 영상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주와 항공, 지상을 모두 커버하는 영상 데이터 서비스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상 데이터는 이날 선보인 한컴그룹의 자체 개발 드론을 통해 공략한다. 관측용 드론인 'HD-500'은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해 지상 이미지·영상 데이터 수집에 최적화했다. 한컴그룹은 교육부터 농업, 국

방, 산업 등 특수목적용 드론을 지속해서 출시할 방침이다. 제품 표준화를 통한 양산화 체계를 구축하고 다중 드론 관제 서비스 플랫폼도 개발해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손꼽히는 영상 카메라 기업인 캐나다의 '인피니티 옵틱스'와도 협업한다. 인공위성용 센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 완성형 초고해상도 센서 시장을 공략하고 나아가 국내외 인공위성 시장까지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컴그룹의 영상 데이터 서비스가 가장 먼저 공략할 분야는 농업이다. 작황 분석이나 곡물 생산량 예측, 지구 온난화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우주·항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확장하기도 용이하다. 나아가 한컴그룹은 산림자원 및 재난재해 관리, 도심지 변화 탐지 등 데이터 활용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컴, 한컴라이프케어, 한컴MDS 등 그룹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영상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명진 한컴인스페이스 대표는 "왜 인공위성을 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그간 정부 주도 우주산업인 '올드스페이스'가 대세였다면 이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우주에 어떻게 나가느냐가 아닌 우주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감시카메라, 위성영상 등 우주산업은 현재 81조 원 규모로 가까운 미래에 10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산업 규모는 2조5000억 원 수준으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장녀 김연수 한컴 대표이사(미래전략총괄)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김 대표는 "영상 데이터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그리게 될 한컴그룹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떡국떡·떡볶이떡 제조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앞으로 5년간 사업 제한

대기업 진출이 우려됐던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 돌아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은 앞으로 5년간(2021년 9월~2026년 9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대기업은 그동안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통해 동반 성장을 해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2020년 만료됐다"며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떡국떡·떡볶이떡 생산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크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많은 소상공인이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공격적으로 확장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차원의 예외 조항은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받지 않는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 등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의 110% 이내이면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식품시장에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이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고종민 기자 kim@



황현식(왼쪽) LG유플러스 사장과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이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첨단 편의점 LG U+·GS리테일 맞손

LG유플러스가 GS리테일과 손잡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최첨단 지능형 편의점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GS리테일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리테일 테크' 고도화, 이종 데이터 융합 등 전방위적 사업협력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리테일 테크는 소매 유통(리테일)과 정보통신기술(ICT·테크)을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리테일 테크의 경우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 기술을 적용해 최첨단으로 탈바꿈하는 유통전략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데이터 기반 상권·매장 분석 기반의 스마트스토어 구축 △미래형 매장 구축을 위한 리테일-테크 솔루션 기획 △데이터 협력을 통한 양사 시너지 과제 발굴 △알뜰폰 및 팻 시장 공략 △MZ세대 공동 마케팅 등 폭넓은 사업 영역에서 상호 협력기로 했다.

또 양사는 홈쇼핑과 디지털 커머스 분야에서 데이터 협업을 통해 더 정교한 타겟 고객 마케팅을 추진한다. 디지털커머스 분야에서는 데이터 기반 고객 프로파일링을 고도화하고 각 사 플랫폼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과 혜택을 추천하는 데 활용한다.

황현식 LG유플러스 CEO는 "GS리테일의 온·오프라인 커머스 플랫폼 역량과 LG유플러스의 데이터·AI 기술을 결합한 리테일 테크 기반 고객 경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 과정에서 양사가 유통과 통신의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KT, 러시아 헬스케어·IDC 사업 나선다

극동개발공사와 MOU 건강검진센터 등 구축

KT가 세계 무대에서 디지털 전환(DX)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러시아와는 헬스케어와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등에서 협력한다.

KT는 러시아 정부가 주최한 제6회 동방경제포럼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동방경제포럼은 극동지역 경제발전 협력을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포럼이다.

행사 중 KT는 극동 지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을 총괄하는 러시아 연방 소속의 극동개발공사와 건강검진센터(헬스케어)·IDC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인허가 확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KT는 혁신적인 DX와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결합한 건강검진센터를 구축 및 운영한다. 이 건강검진센터 사



신수정(왼쪽)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과 이고르 노소프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CEO가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유치와 개발을 총괄하는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업은 KT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산대병원 등 한국의 의료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진행한다.

특히 KT는 포럼 기간 중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와 건강검진센터 구축 사업을 협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MOU를 맺었다. 스베르뱅크 측은 KT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러시아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KT는 블라디보스토크에 IDC 인프라를 구축하고 러시아 및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모스크바에 집중된 러시아의 IDC 및 통신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극동지방에 진출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첨단 IT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 KT는 현지 유력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서부 및 인접 국가 진출을 목표로 하는 거점형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은 "IDC 인프라와 건강검진센터 구축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점으로 KT의 뛰어난 DX 역량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틱톡 "종합 엔터 플랫폼으로 한국 취향 저격"

국내시장 본격 진출 선언

모바일 영상 플랫폼 '틱톡'이 종합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앱)으로서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틱톡은 2일 '틱톡 토크' 미디어 행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틱톡은 2017년 중국 '바이트댄스'가 출시한 영상 플랫폼이다. 15초~1분 길이의 짧은 영상(숏폼)이 특징이다.

닉 트랜 틱톡 글로벌 마케팅 총괄은 "틱톡은 사람들이 문화적 순간을 경험하는 방

식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바꾸고 있다"며 "틱톡은 단순히 하나의 소셜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틱톡은 이날 10대 중심인 한국 이용자층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극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선포했다. '그냥 너답게 즐기거야'를 슬로건삼아 본격적인 브랜드 마케팅도 전개한다.

데이터·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한국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 저장

된다"며 사용자와 커뮤니티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콘텐츠와 협업에도 적극 나선다. TV 프로그램 '런닝맨' 팬미팅 라이브, 2021 리그오브레전드(롤) LCK 선발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틱톡은 향후 한국 시장에 대한 계획에 대해 "한국 사용자들의 취향에 맞는 스티커 제작 및 챌린지 진행 등 누구나 틱톡에서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원 기자 leedw@

빵빵해진 '4.5조 베이커리 시장' 잡아라

코로나19 여파에 빵식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몸집을 불리는 베이커리 시장을 잡기 위해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2일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5년 3조 7319억 원이던 국내 베이커리 시장은 지난해 4조 2812억 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4조 5374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빵 및 떡류'의 가계당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2019년 2만2000원에서 작년 2만5000원으로 10% 늘어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만6000원을 기록했다.

편의점 업체들은 전국 방방곡곡 촘촘한 점포망을 무기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겨냥하고 있다.

올해 초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 THE FRESH(GS더프레시)가 새로운 빵 브랜드 'BREADIQUE(브레디크)'를 선보였다. 이어 지난 4월 프리미엄 브랜드 '브레다움'을 론칭하고, 곡물을 넣어 만든 건강식빵 등 4종의 상품을 출



CU의 자체 베이커리 브랜드 '빵 드 프랑'.

시했다.

세븐일레븐은 연내 총 20여종의 브레다움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였고, CU는 6월 고품질의 자체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빵 드 프랑(Pain de franc)'을 론칭했다.

이같은 시도는 판매량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베이커리 브랜드 '브레디크'를 론칭한 GS25는 5월까지 누적 판매량 750만개를 기록했고, CU도 '빵 드 프랑' 출시 이후 3개월 동안 전용 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8% 상승했다. 6월 36.2%, 7월 49.2%, 8월 52.3%로 매월 매

출 상승폭을 확대하는 추세다. 백화점은 유명 빵집을 집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규 점포 오픈이나 리모델링에 유명 빵집 입점은 빠뜨릴수 없는 단골 소재다.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빵지순례' 리스트에 손꼽히는 삼성동 '르뱅롤즈'를 강남점 지하 1층에 유치했고, 롯데백화점은 천연발효 베이커리 전문점 '여섯시오븐'의 본점과 잠실점 매장을 '블랑제리11-17'로 유명한 운문주 셰프에 맡겼다.

대형마트도 자체 베이커리 품질 강화에 나섰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에서 유일하게 베이커리 100% 직영 공장을 운영하는 홈플러스는 최근 좋은 원재료 마케팅에 나서 패키지와 연출물은 물론 모바일 앱과

웹페이지에 뉴질랜드산 버터 사용, 100% 우유 반죽 등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 빵 'The 좋은버터' 시리즈도 뉴질랜드산 앵커버터 사용 등을 강조한 바 있다.

SSG닷컴은 시간 지정대 배송 택배배송으로 '새벽빵' 배송 서비스 시범운영에 나선다. 이마트 베이커리 코너에서 매일 아침 7시부터 총 10종의 새벽빵을 직접 생산해 오전 9시부터 배송에 나선다. 이미 SSG닷컴은 2019년 12월 김포에 세 번째 온라인 스토어 '네오(NE.O)'를 열어 베이킹센터를 만들고 직접 빵을 생산해 새벽배송으로



SSG닷컴이 택배배송으로 배송하는 '새벽빵'.

판매해왔다. 베이커리 업계도 파이를 뺏길라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이색 제품을 내놓고 배달 마케팅을 강화해 맞불을 놓고 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교촌과 어몽어스, 디즈니와 협업해 신상품을 내놓고, 최근에는 '카레부부' 김재우·조유리 부부와 협업해 '요술카레빵' 등 신제품을 출시하며 품목 확대에 나섰다. 최근 배달 매출이 3배 이상 치솟자 주문 앱 요기요에서 할인 행사도 열었다.

SPC삼립의 파리바게뜨는 6월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 델리(deli) 제품군을 아우르는 브랜드 '델리셔스'를 론칭하고, '식빵 언니'로 유명한 배구 레전드 김연경 선수를 모델로 선정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초반 쿠키반' 케이크와 '팔도비밀빵', '풍기 인삼 케이크', '가평맛남 샌드', '무안양파빵' 등 이색 상품도 출시했다. 9월에는 '파티데이' 행사를 진행해 구매액이 1만5000원 이상일 경우 3000원을 할인한다. 남주현 기자 jooh@



“집콕 휴가의 필수품” 일렉트로맨 QLED TV

이마트 79만9000원에 할인 판매

이마트가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문화 확산에 따라 영상 콘텐츠 시청에 최적화된 '일렉트로맨 프리미엄 4k UHD QLED 스마트 TV (65인치, 163cm)'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시한 일렉트로맨 QLED TV는 이마트와 티지앤컴퍼니(TG&Co.)가 공동으로 기획,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중국 TV 전문 제조사를 통해 생산한 제품이다.

효율적인 생산 방식과 함께 영상 콘텐츠 시청에 적합한 기능만을 골라내 일반 프리미엄 TV보다 30~40%가량 저렴한 89만 9000원에 출시했다.

이마트는 일렉트로맨 프리미엄 QLED TV 출시를 기념해 2일부터 2주일 간 할인 판매한다. 행사카드 구매 시 10만 원 할인된 가격 79만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일렉트로맨 QLED TV는 초 미세반도체 입자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프리미엄 TV다. 밝은 것을 더욱 밝게, 어두운 것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요소인 '색 재현율'을 기존 LED TV에 비해 30%가량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렉트로맨 QLED TV는 65인치 대화면에 프레임리스 베젤로 높은 몰입도를 구현했다. 이에 고객들은 FHD의 4배에 달하는 4K UHD 화질과 함께 초고화질 영상에 더욱 집중하며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마트는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 소비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짐을 인지, 집콕족들을 위해 리모컨에 넷플릭스와 유튜브 바로가기 버튼을 탑재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우윳값 인상에 '대체우유' 뜬다

아몬드·코코넛·귀리 인기 올 시장규모 5870억 예상 스타벅스 '오투라페' 품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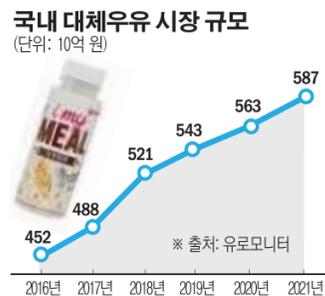
우유가격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대체우유의 인기가 뜨겁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건강이 화두로 떠오르고,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권력으로 등장하면서 식물성 우유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체우유 수요가 몰린 일부 제품은 품귀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2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에 따르면 대부분 매장에서 최대 2주일 넘게 오투라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타벅스에서 유일하게 오투라페가 들어간 메뉴는 '콜드브루 오투라페'다. 이 음료는 현재 '품절(SOLD OUT)' 상태로 명시대 주문할 수 없는 상태다. 대체우유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몰려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스타벅스 측 설명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대체우유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준비한 물량과 제품이 빠르게 소진됐다"라면서 "현재 추가로 다시 오투라페를 수급 중이다. 이달 중 수급이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대체우유 시장 규모는 갈수록 몸집을 불리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6년 4520억 원이었던 이 시장(두유+두유를 제외한 대체우유) 규모는 2020년 5630억 원까지 약 11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4% 더 커진 5870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아몬드유, 코코넛 밀크 등 두유를 제외한 대체우유 시장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두유 시장의 전년 대비 신장률 전망치가 2%인데 비해 비두유 시장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도 대체우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물성음료 관련 사업에 일찌감치 대비해온 매일유업



은 2015년 블루다이어몬드사와 합작으로 선보인 '아몬드브리즈'유의 2019-2020년 판매 신장률이 각각 25%, 50%를 기록했다. 오리진 제 품에서 언스위트나 프로틴, 식이섬유를 첨가한 기능성 식품 등 다변화도 꾀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콩(두유), 아몬드(아몬드브리즈)에 이어 식물성음료로 오투(귀리)음료를 선보였다. 아메이징 오투는 통곡물 오투를 껍질째 그대로 갈아 만든 식물성 음료로, 2종 전부 한국 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아메이징 오투 2종 출시로 콩, 아몬드, 오투(귀리)까지 다양한 곡물을 활용한 식물성 음료 브랜드를 갖추게 됐다.

커피전문점도 대세 흐름에 올라탔다. 카페베네는 6월부터 7월 초까지 170개 매장에서 시범적으로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음료에 식물성 귀리 우유 선택 옵션을 지난달 초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아직까지 식물성 유지 사용 확대 계획은 없지만 최근 비건 소비자 증가에 맞춰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게 카페베네 측 설명이다.

원유가격 인상 현실화가 대체우유 수요를 부채질할 것이라 시각도 나온다. 앞서 낙농업계는 이달부터 우유 원재료인 원유 가격을 1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인상했지만, 정작 국민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은 2018년 27kg, 2019년 26.7kg, 지난해 26.3kg(이상 낙농진흥회 집계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소비량은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현대백화점은 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기간 동안 유명 와이너리와 협업해 와인인과 와인잔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한 스페셜 와인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대표 상품은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베리너'의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인 '리델' 오글라스(2개)를 함께 구성한 '더현대 × 베리너 나파밸리 블랙라벨 세트(12만원)' 등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기간 동안 유명 와이너리와 협업해 와인인과 와인잔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한 스페셜 와인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대표 상품은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베리너'의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인 '리델' 오글라스(2개)를 함께 구성한 '더현대 × 베리너 나파밸리 블랙라벨 세트(12만원)' 등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롯데유통사업본부, 현장관리자에 전기차 지급

롯데유통사업본부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현장관리자에게 친환경 전기차를 도입,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 차량은 기아의 전기차 모델인 '니로EV'로 이달과 내년 1월에 걸쳐 51대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롯데유통사업본부 현장관리자들은 유통 점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촉사원 현장교육 및 활동개선을 위해 인당 연간 2만km 이상 차량을 운행 중이다. 이로 인해 매년 2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나, 이번 전기차 도입을 통해 업무 간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원천을 제거해 환경보호

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관리자의 업무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를 지급받은 현장관리자는 "전기차는 소음과 차량 진동이 적어 운행 피로도가 덜한 것은 물론, 업무 간 환경보호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어 자부심이 생긴다"라면서 이번 변화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롯데유통사업본부 김용기 대표는 "전기차 도입을 통해 전 직원이 ESG 경영을 생활화하고 지속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협한 발언' DHC 한국 철수

'협한 발언'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던 DHC가 결국 한국에서 철수한다.

DHC코리아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영업 종료"를 결정했다"면서 15일 오후 2시까지만 DHC 코리아 소포몰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이로써 DHC코리아는 2002년 4월 한국 진출 후 19년 5개월 만에 철수하게 된다. 앞서 DHC테레비는 일본 제품 불매 운

동이 벌어지던 2019년 당시 협한 발언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를 내보낸 바 있다. 요시다 요시아키(吉田嘉明) DHC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계 일본인 비하 표현인 '총토리'를 사용한 바 있다. 총토리란 조선인을 비하하는 '총(チヨ)'과 산토리의 '토리'의 합성어다. 당시 요시다 회장은 "산토리가 기용하고 있는 모델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거의 한국계 일본인"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DHC 불매 운동이 촉발돼 헬스 앤뷰티(H&B) 매장 등에서 DHC 제품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SDI·바이오로직스·전자〉

6兆 내다판 외국인, 삼성·카뱅·네이버 담았다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sell Korea)'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5월부터 8월(-6조2566억 원)까지 4개월 연속 '팔자' 우위였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우려와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 걱정까지 겹친 데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으면서 환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셀 코리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8월 한 달 코스피는 마이너스 수익률(-0.10%)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중에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은 평균 18.28%에 달했다. 개인은 -7.09%였다. 국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뽑아낸 '외국인 불패 신화'가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

9월 들어서도 이틀간 3044억 원 어치를 팔아치우자 2일 코스피는 3175.85까지 밀렸다. 외국인들이 한국 비중 축소라는 추세와 무관하게 순매수에 나선 국내 주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셀 코리아' 와중에도 2차전자·바이오 '매수' = 한국 주식을 연일 팔아치우는 와중에도 2차전자(배터리)와 바이오 관련주를 쓸어들었다. 외국인이 이달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상위 10종목 중 2

5월부터 '셀 코리아' 행렬에 코스피 3175.85까지 '털썩' 2차전자·바이오는 사들여

개가 2차전자주일 정도다. 외국인이 최근 2차전자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2차전지는 전기차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다. 일단 시장 여건이 좋다. 유럽 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세계 주요국이 친환경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 전망이 좋거나 저평가된 주식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다.

8월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를 끈 종목은 삼성SDI로, 순매수액이 7640억 원에 달했다. 2차전자 업종 대장주인 LG화학 위상이 흔들리자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게 증권가의 주된 분석이다. 실적은 기본이다. 올해 하반기 배터리 부문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둔 가운데 전기차 화재로 인한 배터리 리콜 이슈가 재부각되며 LG화학은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도 185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바이오주들도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외국인 순매수 4위(2454억 원)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위(1337억 원)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유망 투자 업종으로 '바이오'를 꼽았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이후 전반적인 기업 실적 성장률이나 경기 회복 속도는 이전 대비 둔화할 전망이다 만큼 정부 육성 산업으로서 재정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바이오 업종을 추천한 이유를 설명했다. 두 증권사의 바이오 업종 내 추천 종목도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같았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는 나란히 순매수 2, 3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은 각각 4768억 원, 2865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미래가치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구경희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상장 첫날 적정 가치에 도달해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은행업계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기업"이라며 "기존 금융주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LG화학 대신 삼성SDI 주목 카뱅·카카오 '순매수 2·3위' 수익률 불패...방향성 살피야

없어 현재로서는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9월 반도체 사는 외국인 방향성 살펴야 = 수익률에서 외국인은 불패였다. 8월 한 달간 '톱10' 투자 종목 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7.54%) 단 한 종목만 손실을 봤다. 기아(2.63%), NAVER(2.65%), 카카오(4.76%), 삼성SDI(6.34%), HMM(5.00%), 삼성바이오로직스(8.09%), 셀트리온(14.60%), 카카오뱅크(65.36%), SK바이오사이언스(80.94%) 등 코스피 수익률을 한참 웃돌았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SK텔레콤(3.99%) 한 종목만 코스피 수익률을 웃돌았다. 1조663억 원어치를 산 삼성전자는 -2.17%, 1조4776억 원어치를 산 SK하이닉스는 -4.00%였다. 현대차(-

1.38%), 금호석유(-5.41%), LG디스플레이(-6.80%), POSCO(-7.91%), LG전자(-10.48%), 롯데렌탈(-14.09%), 엔씨소프트(-22.69%) 등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그렇다면 외국인 추종 매수에 나서야 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인기 있는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종목이 반등할 경우 외국인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빅2'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작정 외국인을 따라가는 '묻지 마' 주식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수급 패턴을 살펴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8월 한 달 동안 한국 ETF로 573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달 31일 이후 외국인은 삼성전자 4883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SK하이닉스 주식도 지난달 17일 이후 5349억 원가량 매수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한국 ETF 자금 유출입과 코스피 외국인 매매는 큰 흐름을 같이 한다"면서 "국내 불확실성 완화 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유입·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난희 수습기자 nancho0907@



하나금융투자 비대면 IRP 고객 수수료 무료 혜택

하나금융투자는 비대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무료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또 하나금융투자에서 비대면 신규 IRP 계좌 개설 후 타사의 IRP 계좌를 계약이전해 오는 고객도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투자

신규 상장주 '록업 해제' 임박... 주가 향방은?

9월 크래프톤 126만 주·SK바사 5235만 주 해제... 기관 물량 쏟아질 가능성

지난달 17일 36만 2000원까지 상승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30만 7000원까지 주저앉았다. 2일 장중 52만 원까지 올랐던 크래프톤은 매물 벽에 부딪혀 49만 1500원에 마감했다.

공모주 청약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목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 소식에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보호예수 물량이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더 많이 받는 조건으로 상장 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물량을 말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오는 9일 미래에셋증권(Mirae Asset Securities (HK) Limited)이 보유한 9만 주, 10일에는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 프리미어 Growth-M&A투자조합 등이 보유한 117만 1078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관투자자들은 상장 당시 보유 물량에 대해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건 바 있다. 기관투자자 물량이 당장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작다. 2일 기준 크래프톤 중가는 49만 1500원을 기록했는데, 공모가(49만 8000원)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1.3%에 지나지 않아서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최대주주 SK케미칼이 보유한 5235만 주에 대해 오는 18일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이는 전체 상장 주식 수(7650만 주)와 비교하면 68%에 달하는 물량이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6만 5000원)와 비교해 5배 가까이 올랐지만, 최대주주 보유 물량이어서 당장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작다.

한편, 지난 8월 초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임원진들은 30만 원 선에서 보유 주식을 줄줄이 처분한 바 있다.

아주스틸은 기관투자자 물량 227만 4999주에 대해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자발적 보호예수여서 해제 후 기관투자자 성격에 따

라 보유 현황이 같길 전망이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1만 5100원) 2배 정도 오른 상태여서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4일 오리엔트바이오(1677만 970주), 19일 와이투솔루션(5900만 주), 25일 오투기(6만 6744주) 등도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한다. 상장전 제3자 유상증자나 사모증자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했던 물량이 단기에 쏟아져 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날 우정사업본부 1조원 규모의 블록딜(시간의 대량매매)을 했다는 소식이 카카오뱅크가 이날 7.77% 하락한 것도 이

9월 보호예수 해제되는 상장기업

(단위: 만 주) ※출처: 한국거래소

해제일	회사명	해제물량
9월 25일	오투기	6.7
9월 20일	아주스틸	227.5
9월 19일	와이투솔루션	5900.0
9월 18일	SK바이오사이언스	5235.0
9월 10일	크래프톤	117.1
9월 9일	크래프톤	9.0
9월 4일	오리엔트바이오	1677.1

를 방증한다. 시가총액도 40조원 아래(38조 9107억 원)로 떨어지며 시총 순위(보통주 기준)에서 셀트리온(39조 7251억 원)에 9위 자리를 내주며 10위로 처졌다.

이인아 기자 ljh@

주식 거래 줄자... 증권사 2분기 순익 '뚝'

금감원 발표, 당기순익 22.6%↓

얼어붙은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2분기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20%넘게 감소했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증권사 58곳 당기순이익은 2조 317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대비 22.6%(6771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2분기 중 증권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5%(연환산 15%)로 전년 동기(3.7%)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항목별로 보면 2분기 수수료수익은 4조 1521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8.7%(3958억 원) 감소했다. 이 중 절반 가량이 주식거래 시 매겨지는 수탁수수료다. 수탁수수료는 1조 999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7%(5220억 원) 줄어들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과 외화증권 수탁수수료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IB 부문 수수료는 1조 2778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5.8%(705억 원) 증가했고, 자산관리부문 수수료는 332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2%(6억 원) 증가했다.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자금으로 수익을 내는 자기매매순익은 8974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7.2%(1858억 원) 줄

분기별 주식 거래대금·수탁수수료 추이

(단위: 조 원) ※출처: 금융감독원



었다. 이 중 채권관련이익과 파생관련순익은 각각 전 분기 대비 45.8%(1920억 원), 197.4%(3739억 원) 증가한 6116억 원, 1845억 원을 기록했다. 주식관련 이익은 88.1% 내린 75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증권사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전 분기 말 대비 25.1%포인트 상승한 746.6%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추진, 코로나19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면서 "증권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분기 선물회사 4곳의 당기순이익은 91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8% 줄었다. 자기자본순이익(ROE)은 1.8%(연환산 7.3%)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난희 수습기자 nancho0907@

미래에셋자산, 상반기 해외서 더 벌었다

해외법인 순익 2325억, 국내 앞지른 유일한 금융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올 상반기 약 37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이익을 무려 2배 넘게 늘렸다.

증권사와 운용사 전체 384개 사 중 7위를 차지했다. 20위 내에 유일한 운용사다. 특히 해외법인의 순이익이 2325억 원으로 국내법인 1818억 원 보다 많아 글로벌 운용사로서의 면모를 재확인 했다는 평가다. 해외법인 순이익이 국내보다 더 많은 금융회사는 미래에셋운용이 유일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 상반기 연결 기준 순이익은 369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91억 원에 비해 166% 늘어난 것으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특히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은 이번 분기 50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를 기록했



다. 실적을 견인한 해외 법인의 운용자산(AUM)은 올 6월 말 기준 81조 5563억 원으로 총 운용자산 243조 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2016년 말 13조 9800억 원에서 6배 가까이 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실적의 주역은 ETF다. 미래에셋운용은 미국과 캐나다 현지 ETF 운용사 '글로벌 엑스(Global X)', '호라이즌(Horizons) ETFs' 등을 통해 총 10개국에서 314개의 ETF를 운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의 글로벌 ETF 순자산은 6월 말 기준 77조 3000억 원 규모로 전 세계 운용사 가운데 10위권대를 기록 중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

최고 경쟁률 6049:1... 집값급등에 '생숙'까지 투자광풍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1.5억 웃돈까지 붙어 규제 문턱 낮지만 '거주적발 시 이행강제금' 투자 유의해야

주택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틈새 상품으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분양권 전매와 세금 등에서 아파트보다 규제 문턱이 낮아 대체재로 인식돼서다. 하지만 매입에 앞서 따져봐야 할 점도 적지 않은 만큼 묻지 마 투자는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 특별계획구역 내 CP2 블록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분양권에는 최고 1억5000만 원 안팎(프리미엄)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전용면적 49㎡형의 경우 동과 층에 따라 1500만~5000만 원, 전용 100~111㎡형은 최고 1억5000만 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앞서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달 진행한 청약에서 총 57만5950건의 역대급 청약 건수가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657대 1, 최고 경쟁률은 6049대 1에 달했다. 지상 15층짜리 총 876실(전용면적 49~111㎡) 규모로 지어지는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아파트가 아닌 이른바 '레지던스'로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 숙박시설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돼 일반적인 호텔과 비슷하면서도 실내 취사가 가능해 거주시설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파트도 아닌 숙박시설이 최근 부동산 시장 광풍의 중심에 선 것은 낮은 규제 문턱 때문으로 보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이 아닌 추첨제로 당락을



생활형 숙박시설 장점 및 단점

- 장점**
 - 아파트(주택법 적용)와 달리 건축법 적용
 -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 가능
 - 양도세 취득세 증과 대상 아님
- 단점**
 - 숙박업 신고 필요
 - 주택사용 적발되면 강제이행금 부과
 - 취득세 4.6%로 아파트보다 높아

가린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중과 대상도 아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나온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평균 862대 1), 지난 3월 부산 동구에서 공급된 '롯데캐슬 드메르' (356대 1)에 청약자들이 줄을 선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 인기는 주택 위주의 부

동산 규제 및 집값 급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청약의 경우 당첨 문턱이 워낙 높다 보니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청약약점도 따지지 않는 틈새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풍선 효과 현상'이라는 것이다.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대규모 개발 호재로 주변 아파트값이 들쭉이고 있다는 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청약 열기를 내뿜는데 한몫한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엄연히 숙박시설이어서 원칙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초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주거용 숙박시설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숙박업 미신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안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이달 안에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다. 따라서 취득세가 오피스텔처럼 4.6%에 달한다. 또 대부분 상업지역에 들어서 학교와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주거 편의시설 면에서 아파트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주택의 대안이 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서울시 '공공기획' 리브콜, 大魚 반응은 '미지근'

여의도 시범·용산 신동아·송파 장미 등에 참여 요청 '반감 여전'

서울시가 '공공기획 재건축' 확산을 위해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등 재건축 대어(大魚)에 손을 내밀었다.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다.

서울시는 이달 1일 공공기획 재건축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건축 추진 단지 6곳에 보냈다. 공문을 받은 곳은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1·2차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반포포미1차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장미·2·3차아파트 등이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곳은 물론 아직 정비구역 지정조차 안 된 곳까지 리브콜을 보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도 이들 단지가 공공기획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획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신 인허가 절차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간소화해준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는 공공기획 제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약속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지키면서도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을 챙기기 위해서다.

단지명	현재 가구 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1584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326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1·2차아파트	2126
서초구 반포동 반포포미1차아파트	1260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	2436
송파구 신천동 장미·2·3차아파트	3522

* 공공기획 정비사업 : 서울시가 사전 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에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는게 장점.

25개 구역 선정은 목표로 다음 달 공모를 시작하는 공공기획 재개발과 달리 공공기획 재건축은 서울시 담당자가 주요 단지를 개별 접촉, 후보지를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획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참여 의사를 묻고 있다. 단지 규모가 크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예비 후보군을 정했다"며 "아직 예산상 한계로 공모보다는 개별적으로 공공기획 재건축 사업자를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획 재건축 리브콜을 받은 단지 중 공개적으로 호응 의사를 드러낸 곳은 아직

없다. 공공기획 재건축에 따른 수지타산을 따지기 어려워서다. 현재 공공기획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단지는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한 곳뿐이다.

김기완 대치미도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공공기획 참여 여부는 소유자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메리트가 없으면 소유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도 집행부에서만 참여 여부를 논의했을 뿐 소유주 의견 수렴 절차는 미루고 있다.

지난달 공공기획 재건축 정비계획이 공개된 오금동 현대아파트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도 공공기획 재건축을 촉진하는 데 부담 요인이다. 오금동 현대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단지 2625가구 중 54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비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에 널 반대 탄원서도 1100여 장 넘게 모았다.

공공기획 재건축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송파구는 정비계획 심의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기획 제도 안착을 위해 제도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공'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공공이 정비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반감을 만든다는 생각에서다.

박종화 기자 pbell@

'더블 역세권' 교통호재 목동4·7단지 집값 경풍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4단지 7단지 매매값이 각종 교통과 개발 호재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 경전철사업을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총 길이 25.72km의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노선으로 서울강북과 강서알대들 횡단해 강북판9호선으로 불린다. 총 길이 10.87km의 목동선은 신월에서 당산역을 잇는 노선으로 전 노선을 지하철 할 계획이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경전철 개통의 최대 수혜 단지로 목동4단지와 목동7단지가 꼽힌다. 목동4·7단지 주변으로 강북횡단선 목동사거리역, 목동역과 목동선 SBS역, 오목교역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목동4·7단지는 사실상 더블역세권으로 떠올라 일대 부동산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전망된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도 큰 호재다. 이 사업은 신월IC부터 국회 의사당 교차로까지 7.6km 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애초 서울시는 예산,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목동4·7단지를 지나는 구간에 3m 높이의 돛형 뚜껑을 씌워 경사가 있는 곡면 공원을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를 재검토했고, 결국 636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상부공원과 주변 도로 높이 차이를 없애 완전 평면화하기로 했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으로 목동4·7단지 간 통행이 편리해지고, 인근에 공원도 새로 조성되는 등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목동4·7단지 중심지로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목동4단지 전용면적 96㎡형은 현재 24억 원을 호가한다. 지난달 30일 국회대로 공원 평면화 발표 이후 며칠 새 5000만 원 넘게 올랐다. 목동7단지 전용 101㎡형도 일주일 새 5000만~7000만 원 올라 27억5000만 원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M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아파트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4·7단지 위치도

수도권 상위 20% '집값 15억' 문재인 정부서 7억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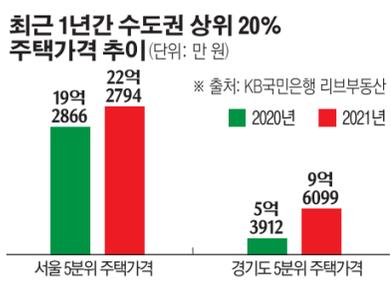
서울 22.3억·경기 9.6억·인천 7억 최근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도권 상위 20% 주택 매매가격이 15억 원을 돌파했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5분위(상위 20%) 주택 가격은 평균 15억 893만 원으로 집계됐다. KB가 수도권 집값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수도권 5분위 주택값은 2018년 9월 평균 10억 원을 넘긴 뒤 2019년 12월 11억 원을 돌파하며 1년 3개월 동안 1억 원 올랐다. 이

후 7개월 만인 작년 7월 12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13억 원을 넘어섰고, 다시 4개월 만인 올해 2월 14억 원을 넘겼다. 14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오르는 데는 반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최근 1년 새 2억6445만 원 오른 셈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4억3845만 원 뛰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7억 9062만 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7억 1831만 원)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분위 주택 가격은 22억279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억 원(2억 9928만 원), 2년 전보다 5억 원 넘게(5억 248만 원) 올랐다. 2017년 5월(12억1327만 원)과 비교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10억 원



넘게(10억1466만 원) 상승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5억3912만 원에서 9억 6199만 원으로 오르며 1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천은 4억3032만 원에서 7억 66만 원으로 2억7034만 원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이 치솟자 탈(脫)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인천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강원도 삼척시 국공립 셋별하나어린이집



부산 하나금융 공동직장 어린이집

‘어린이집’ 하나의 이름으로 백가지 꿈을 키웁니다

[하나금융그룹 어린이집 100호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어린이집 100호 건립으로
지역에 맞춘 보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전라북도 군산시 국공립 미장하나어린이집



대검 “윤석열 檢서 與 인사 고발 사주” 진상조사 지시

인터넷매체 청구 고발의혹 제기
“유시민 등 11명 고발장 野 전달”
이재명 “정치공작” 尹 “사실무근”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야당에 여론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일 “이날 언론 기사 내용 관련 검찰총장은 대검 검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생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지난

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후보였던 김웅 의원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범여권 인사 11명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던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였으며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 자료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 의혹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사정기관을 시정잡배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윤 전 총장의 보복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사건”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검찰총장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무기로 정권을 흔들려는 것도 모자라 정치개입과 보복수사까지 기획한 것이자, 부인에 대한 보도를 막으려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의미”라며 “한마디로 공권력인 검찰의 칼을 총장 개인을 위해 쓴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의 핵심 중 핵심 부서로, 지난해 윤 전 총장 지시로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를

생산한 곳”이라면서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 정치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김웅 의원에게 여론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의원과 여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해명한 바에 따르면 총선 때 당에 흔히 들어오는 제보들이고, 이걸 이관하고 이첩한 문제라던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청부 고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 조어진 말이지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다. 실제 고발이 이뤄진 바도 없다”며 “예를 들어 누군가 제게 밀 제안한다고 해서 제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나. 더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측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정수천 기자 int1000@



양경수 민주노동위원장 구속 서울 도심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동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2일 새벽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양 위원장의 구속에 민주노동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로 갈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은 다음 달 20일 110만 명의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대규모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양 위원장이 이날 민주노동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전면 재검토하라”

52개 대 총장·보직교수 시위... 최종 결과 오늘 공식 발표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52개 일반대와 전문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최종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2일 오후 구조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20여 명의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구조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교육부(14·2동)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이어가며 평가에 대한 불공정과 불합리를 규탄했다.

총장들은 “이번 평가가 대학역량평가 아니라 보고서 작성평가”라며 보고서만 가지고 비대면으로 현장평가 없이 정해진 시간 내 평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의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여타 다른 재정지원사업에도 다수 선정될 정도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하

고 있다”며 “중도이탈률도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만족한다는 지표”라며 평가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탈락대학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이날 구조개혁위원회는 마지막 심의를 교육부에서 열었다. 20여 명의 구조개혁위원회 심의 위원들은 교육부 직원들의 안내를 받고 보안 유지를 하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1시간 반가량의 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온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역량진단 심의) 최종 결과와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일부 대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탈락한 25개 4년제 대학 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평가의 불공정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검토와 관련 재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산업안전법 위반’ 대우건설 벌금형 확정

대법, 상고심서 1000만 원 선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 인재”

부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우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3월 대우건설이 진행한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은 14주 골절 상해를 입고 1명

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소장 등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주시시키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했다.

또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연결하고 작업하도

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1심은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기본적인 안전지킴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장소장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도 대우건설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전자발찌 훼손·연쇄 살인’
56세 강운성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운성(56·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이후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9일 오전 3시에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29일 오전 8시에 경찰에 자수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금전적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강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또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범죄사실 관련 진술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검사 등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라고 1차 구두 소견을 낸 바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檢 증인 회유 여부 놓고 기싸움 팽팽

“검증 없이 같은 증인 재신문 안돼”
“회유·압박 있으면 의혹제기 가능”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증인 회유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모 씨의 증언은 오염됐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해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의 증언을 토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뒤집힌 것에 대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증거

가 오염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검증 없이 같은 증인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인을 사전면담 후 증언이 바뀌었다”며 “증인이 검찰에 언제, 몇 번 출석했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항소심에서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는 증인이 오염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한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증언에 차이가 생겼다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형사 사건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이 법률이 아니라 증인의 신빙성을 재고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없는 의혹 제기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0월 7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구제지수습기자 sunrise@

배롱나무 꽃빛 여름 원림을 밝히네



답사 Tip
 가을 초입까지 배롱나무 꽃 물결이 이어지는 원림이다. 배롱나무 숲 바깥으로는 솔 숲이 겹을 이뤄 아름답다. 인근에 있는 소재원, 환벽당, 송강정 등을 비교 답사해 조선 정원과 정자의 운치를 배로 즐긴다. 현대의 민간 정원인 죽화경도 볼 게 많다.



담양 명옥헌

보이느니 꽃이다. 배롱나무의 진분홍 꽃털기 흐드러져 천지가 통째 붉다. 길 가다가 시원한 귀인을 만나는 요행만이 황재이라. 배롱나무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에겐 개화 만발한 배롱나무들과의 상봉 역시 황재처럼 아찔하다. 염천의 피야별은 사납다. 그러나 꽃 도가니로 들어서자 시나브로 땀이 식는다. 정아한 꽃 정취로 상큼하다. 이왕 명옥헌(鳴玉軒)을 보러거든 한여름에 가소! 남들의 귀림은 옳았다. 그걸 곧이곧대로 따른 덕분에 꽃 호강을, 꽃 멀미를 푸지게 즐긴다.

명옥헌은 아트막한 야산 자락에 조성된 조선 원림이다. 이곳 담양은 가사문학의 산실답게 산천 곳곳에 원림과 정자들이 있다. 소재원, 식영정, 송강정, 환벽당, 독수정 등 유서와 가지로 한 가락씩 하는 옛집이 즐비하다. 정자들은 저마다 풍류에 이끌 난 선비들의 풍속을 전하고, 시절의 비비 꼬인 영육을 웅변한다. 문예의 사연을 통기하며, 건축의 고고한 기품을 겨룬다. 명옥헌도 예외가 아니다. 내력과 격조로 돋보이는 원림이니가. 근집을 이룬 배롱나무들이 일제히 꽃을 피워 올리는 여름철 가경은 단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탐스런 꽃송이들은 어디까지나 고요해 우아하다. 들쭉이며 수선을 떠는 건 사람뿐이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꽃과 꽃 사이를 노닌다. 전국 곳곳에서 달려온 사진작가들이 기를 쓰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진풍경도 펼쳐진다. 한복으로 꽃단장한 모델을 대동한 동아리도 있다. 그리고 보면 배

선비 오이정이 선친 기리려 야산 자락에 조성
 우아한 배롱나무 꽃 홍수 들어서면 감탄 절로
 작은 정자 하나와 연못 두 개, 질박한 꾸밈새
 산림처사를 본분 삼은父子의 소탈함 느껴져

롱나무 꽃만 절정이 아니다. 꽃의 홍수를 만난 사람들의 가슴에도 희열이 들쭉아 행복하다. 또는 황홀하다.

명옥헌 원림은 조선 중엽의 선비 오희도(吳希道, 1583~1623)로부터 유래했다. 오희도는 진사시에 붙었으나 벼슬에 큰 뜻을 두진 않았던 것 같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잠깐 벼슬을 살았지만 이곳 산골에 오두막 하나 짓고 은거한 세월이 길었다. 당쟁의 아귀다툼과 광해군의 무자비한 골육상쟁에 환멸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오희도의 고민과 생각은 아들 오이정(吳以井, 1619~1655)에게 이어졌다. 그는 선친의 뜻을 헤아리고 섬겨 은일한 산림처사로 자족하기를 본분으로 삼았다. 오이정이 꾸린 게 바로 명옥헌이다. 선친을 기리기 위해 지었으며,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 보인 소박한 원림이다. 부자가 공히 세상일 이야 저질러놓은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 외면하고 청산에 묻혀 고사리처럼 조용하게 살고자 했던 셈이다.

부자의 인품과 공부와 실력엔 나무랄 데가 없었다. 인조가 왕위에 오

르기 전 오희도를 중용하기 위해 직접 원림하기도 했다는 게 아닌가. 아들 오이정의 됴됨이에 대해선 송강 정철의 아들 정흥명(鄭弘暹, 1582~1650)이 쓴 '명옥헌기'(鳴玉軒記)에 잘 묘사돼 있다. 오이정의 '소탈하지만 강직한 성정'과 '옥처럼 티 없는 마음'을, 또는 '환하고 분명한 심지' 등을 내세워 예찬했다. 굳이 정흥명의 평이 아니더라도 은자의 처신을 미루어 알겠다. 원림의 질박한 꾸밈새를 통해서 말이다. 작은 정자 하나, 그리고 상지(上池)와 하지(下池) 두 연못뿐이지 않은가.

여름날의 명옥헌을 선창하고 후렴까지 노래하는 건 아무래도 배롱나무 꽃무리다. 정자도 연못도, 밝은 곳도 그늘진 곳도 마냥 꽃빛에 물들어 붉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배롱나무 앞에선 남세스러운 애기다. 이 나무의 개화기는 길어 석달 열흘에 이른다. 드라마로 치자면 흥미진진한 연속방송극이다. 극의 전체를 볼 수 있다면 감회 역시 유감하겠다. 하지만 오늘 하루 한 장면만 보더라도 유감스러울 게 없다. 슬쩍 꽃에 편승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 열락을 맛보기에 충분하다. 유심히 꽃을 보면 얼굴이 보인다. 눈길이 비친다. "괜찮다, 괜찮다!" 그리 속살거리니 입이 보인다. 이럴 때 딱 막혔던 가슴으로 한 줄기 위안이 들어친다. 삶의 고달픔이나 쓸쓸함에 붙들렸던 생각은 깨어나 밝고 명쾌한 쪽으로 기운다.

개화가 연달아 낙화도 줄을 잇는다. 수관에 매달린 꽃잎들, 바람을 타고 분분히 흩날려 땅으로, 연못가로, 물 위로 내려와 얇게 널린다. 그렇게 바닥에 고운 문양처럼 깔린 꽃들, 아직은 산목숨이라는 듯 선연해 애뜻하다.

글/박원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올 수시 26만2378명 선발... 10~14일 원서접수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월 10일부터 시작된다.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전체 모집인원은 34만6553명이다. 이 중 26만2378명(75.7%)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지난해에 비해 4996명 줄어든 수치다. 전체 모집인원에서 수시 전형별 선발비율은 △학생부교과전형 42.9%(14만8506명) △학생부종합전형 22.9%(7만9503명) △실

기·실적전형 5.4%(1만8817명) △논술전형 3.2%(1만1069명) △기타 1.3%(4483명) 순이다.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14일까지이며 대학별 전형은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까지, 합격자 등록은 같은 달 20일까지다. 수시 최초·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손현경 기자 son89@

수능 최저기준 설정, 빅데이터·AI 학과 신설



경희대학교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모집정원(5319명)의 57.9%인 3079명을 선발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신설됐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고교별 최대 6명(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예술·체육계 1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80%, 비교과(출결·봉사) 20%를 합산해 총점 순으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네오르네상스전형은 올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됐다. 인문·자연계열은 2개 영역 합이 5등급 이내, 의학계열은 3개 영역 합이 4등급 이내다. 탐구영역은 상위 1개 과목만 반영하고, 한국사는 인문·자연·의학



계열은 5등급 이내를 취득해야 한다. 예술·체육계열은 국어·영어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 한국사 응시는 필수다. 경희대는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영역에서 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첨단학과를 신설했다.

학종 1560명 선발·이중전공 활성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546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으로 860명을 뽑는다. 교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교과) 80%와 서류 20%를 합산한 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일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총 156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학업우수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종합평가해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일 반전형-계열적합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종합평가해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



를 합산한다.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등)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종합평가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한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892명을 뽑는다.

인재전형 서류·면접형 구분... 연령제한 폐지



덕성여자대학교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73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100%전형과 고교추천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지원자 연령과 졸업연도 제한을 폐지했다. 덕성인재전형은 이번 수시부터 서류형인 덕성인재전형 I과 면접형인 덕성인재전형 II로 구분한 게 특징이다. 덕성인재전형 II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덕성인재전형 II 외 6개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평가 100%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100%전형과 논술전형에서 적용한다. 약대를 제외한 학생부 100%전형과 논



술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과학·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하며 최저 등급 제한은 폐지됐다. 약대의 학생부 100%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탐구 과목은 과학탐구 2과목 평균이 반영된다.

상명인재전형, 서류·면접고사 종합평가



상명대학교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캠퍼스 918명, 천안캠퍼스 958명을 선발한다. 이 중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은 서울캠퍼스 47.7%(438명), 천안캠퍼스 26.8%(257명)다. 학생부종합 대표전형인 '상명인재전형'에서는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를 시행한다. 1단계 서류평가 100%(3배수 선발), 2단계 서류평가 70%·면접고사 30%로 시행된다. 면접고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확인 면접으로 공정성을 위해 블라인드면접을 통해 10분 내외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자기소개서 작성은 폐지됐다. 입학처 관계자는 "교과 성적을 기계적으로 산출해 점수화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외의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는 서류평가 100%만으로 선발한다. 서울캠퍼스에서 367명을 모집하는 고교추천전형을 지원자가 해당 고교에서 학교장의 추천(고교별 10명 이내)을 받아야 지원 가능하므로 원서접수 전 추천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수시 58.7% 모집... '학생부교과전형' 신설



서강대학교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으로 988명, 정시모집으로 696명 등 총 1684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 포함 수시모집 58.7%, 정시모집 42.3%로 지난해보다 수시모집 비율이 약 10%포인트 줄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으로만 모집하던 지난해와 달리 학생부교과전형이 신설됐다. 전형별로 학생부교과전형 172명, 학생부종합전형 일반 549명, 고른기회 72명, 사회통합 26명, 논술(일반)전형 169명을 선발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 전 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류평가요소인 지(학업역량), 정(인성), 의(성장 가능성)를 각각 50%, 20%, 30% 반영



해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출결 사항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결손에 대해서는 미반영하고, 학교 내 활동(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및 학생 상황을 고려해 평가 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시 비중 확대·인문계열 논술고사 폐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2학년도 신입학 전체모집인원 2384명의 약 63%인 1503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전형별 모집인원은 고교추천전형 433명(18.2%), 학생부종합전형 785명(32.8%), 논술전형 217명(9.0%), 실기전형 68명(2.9%) 규모로 선발한다. 먼저 학생부교과전형이 '고교추천전형'으로 바뀐다. 정시선발 비중 확대와 인문계열 논술고사가 폐지되면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이 소폭 감소했다. '소프트웨어인재전형'도 폐지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첨단인재전형'은 인공지능



융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등 창의융합대학 소속 학과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신설 전형으로 총 60명을 선발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선 전년도 모집과 동일하게 고교추천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전형 간 복수지원도 가능하다.



성적 100% 학생부전형 신설... 수시가 60%



성균관대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 3609명 중 59.9%인 2161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 모집에서 전형별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340명, 학생부교과전형으로 361명, 논술우수전형으로 357명, 예체능 특기·실기우수자전형으로 103명을 모집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계열모집(330명) △학과모집(757명) △고른기회(60명) △정원의 특별전형(193명)으로 나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올해 신설된 전형으로 361명을 모집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2022년 고교졸업 예정자 중 학생부에 5학기 이상 교과 성적이 기재돼 있어야 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평가한다.

논술우수전형은 올해 357명을 모집한다. 논술우수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학생부 교과 40%와 논술시험 60%로 평가한다.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작년보다 소폭 확대



숙명여자대학교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으로 정원 내 기준 총 2158명을 선발한다. 그중 수시모집 비율은 56.3%(1215명)이다.

수시모집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인 '숙명인재 I (서류형) 전형'과 '숙명인재 II (면접형) 전형'으로 총 533명을 모집한다. 339명을 선발하는 숙명인재 I (서류형) 전형은 서류심사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숙명인재 II (면접형) 전형으로는 총 194명을 선발하며, 2021학년도까지 2단계에서 60%를 차지했던 면접 반영 비율을 40%로 조정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고른기회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도 67명에서 소폭 확대해 총 80명이 선발한다. 논



술우수자 전형은 수시모집에서 총 227명을 모집한다. 논술시험 70% 및 학생부 30%로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은 2021학년도와 같다.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는 '학생부교과(지역균형선발전형)'로 명칭이 바뀌었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서류 100% 일괄평가



성신여대는 2022학년도 신입학 정원 내 모집인원으로 총 2232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선발 비율은 65.6%에 달한다.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다른 전형과 비교해 가장 많은 인원인 1032명(정원 내)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인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일괄평가해 선발한다. 자기주도인재전형은 단계별 평가 방식으로 1단계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평가 30%와 1단계 서류평가 70%를 합산해 선발한다.

서류평가는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총 4가지 항목에 따라 평가하며 전형별로 서류



평가 비율이 다르다.

서류평가 100%로 일괄평가하는 학교생활우수자, 고른기회I, 고른기회II,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학업역량 40%, 전공적합성 20%,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의 비율로 평가한다.

수시 선발 소폭 축소... SSU미래전형 628명 선발



송실대학교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모집정원(3078명)의 58%인 1786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 학생부우수자전형에 별도의 학교장추천이 필요하다.

학생부우수자전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추천 제한 인원은 없다. 전형방법은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지난해와 같지만 공통 과목 일반선택(80%), 진로선택과목(20%)으로 세분화됐다. 진로선택과목은 취득한 성취도(A, B, C)에 따라서 등급(1, 2, 3)을 부여한다.

전체 수시 선발 인원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SSU미래인재전형은 628명을 선발한다. 융합특성화자유전



공학부는 4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2학년 진급시 주전공 및 융합전공을 선택한다.

SW특기자전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5명을 선발한다. 1단계는 100% 서류종합평가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적 70%에 블라인드 면접 결과 30%를 반영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고 교사추천서는 폐지됐다.

삼성전자 협약 '시스템반도체공학과' 50명 모집



연세대학교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모집정원(3431명)의 56.9%인 1954명을 선발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신설됐다.

학생부교과전형(추전형)은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에서 개편된 전형으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학교별 3학년 재학생 수의 5%)만 지원할 수 있고 면접대상은 5배수까지 확대해 선발한다. 면접평가는 현장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모두 지원 가능하다. 올해 최저학력기준



이 신설됐고, 면접평가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역량을 평가하며, 현장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스템반도체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와의 협약에 의한 계약학과이며 올해로 2년차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원의 전형으로 총 50명을 선발한다.

인공지능전공 신설·약학대학 학제 개편



이화여자대학교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정원 3133명의 66.7%인 2090명을 선발한다.

수시전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1054명을 뽑는다. 면접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서류 100%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인 고교추천전형에서는 400명, 논술전형에서는 330명을 선발한다. 고교추천전형의 경우 인문·자연 구분 없이 고교별 재적 여학생 수의 5% 이내, 최대 10명까지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 가능하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없이 지원자 전원 면접을 치르고 교과 80%와 면접 20%로 일괄합산해 선발한다.



2022학년도부터 첨단과학인 AI융합학부 인공지능 전공을 신설해 정원 40명 중 수시에서 10명을 모집한다.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라 학부 신입생을 총 129명(정원 외 9명 포함) 선발한다. 이 중 수시에서 학생부종합(미래인재전형)으로 30명을 선발한다.

약대 신입생 선발·학생부전형 교사 추천서 폐지



중앙대학교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정원 5074명의 63%인 3231명을 선발한다.

이번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이 신설됐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다빈치형인재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고 자기소개서 공통 문항이 3개에서 2개로 줄어 총 3문항으로 구성됐다.

중앙대는 약대 학제 개편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약대 학부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원 120명이지만 수시와 정시에서 총 129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국 37개 약대 중 최대 규모다. 수시에서는 55명을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전형에서 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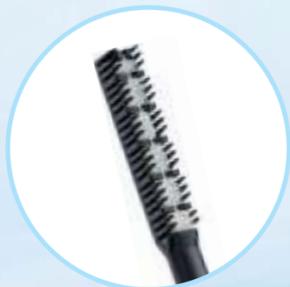
올해 신설된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은 전년도에 교과 위주 전형인 학생부교과와 학교장추천전형을 통합한 전형이다. 교과 70%와 비교과 30%로 선발되며 모집인원은 511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인원은 1620명이다.



2021년 신제품

한번의 터치로 더 넓게 빠르게!
비나 땀에도 흘러내리지 않는 방수 피막제 특허!
블랙푸드 콤플렉스 4종으로 충분한 영양 공급!
4가지 단백질 함유로 부드럽고 광택 나는 모발!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 라이트브라운 3가지 컬러 구상!



특수 설계된 브러쉬
특허받은 브러쉬 디자인으로
두피 문음, 여러 번 덧칠 필요 없이
한번에 커버 가능합니다



티나는 새치걱정! 세븐에이트로 PICK! 세븐에이트 새치커버틴트

여러 번 덧발라야하고, 딱지고, 티나고...“이럴거면 그냥 염색할 걸”



기존 새치머리 커버 제품에 불만이 있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동성제약 세븐에이트 새치커버틴트는 스펀지 내장형 특수 브러쉬 설계로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빠르게 커버해줍니다.
뛰어난 지속력은 물론, 건조 후 모발이 굳지 않아 자연스러운 연출까지!
동성제약 세븐에이트 새치커버틴트는 다릅니다.

동성제약 64년, 염모제 기술은 다릅니다 - 세븐에이트 새치커버틴트



특허 받은 특수설계 브러쉬
브러쉬 사이 스펀지 내장으로 넓은 면적을
빠르게 커버 (특허 제30-1095802호)



방수 피막제 특허
비나 땀에도 흘러내리지 않아 보다
오래 가는 지속력 (특허 제10-0863324호)



블랙푸드 콤플렉스 4종
검은깨 · 흑미 · 블랙베리 · 블랙커런트
추출물로 모발에 충분한 영양 공급



4가지 단백질 함유
케라틴, 콜라겐, 실크, 콘키울린단백질
함유로 부드럽고 광택 나는 모발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

라이트브라운



“체납자 위장전입 많아, 주소지 찾기 가장 어렵죠”

‘광역시도 유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

올해로 창설 20주년, 10년을 함께해...“세금 추적 끝까지” 생활 어려운 체납자 복지 연계 ‘착한 암행어사’ 말도 듣죠

서울시에는 특별한 부서가 있다. 직원들은 공무원증 세 개를 갖고 ‘특정 인물’의 거주지를 찾아 수색한다. 시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부서는 바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직접 하는 ‘38세금징수과’다.

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만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부서 창설 멤버다. 지방세 세무 직렬이 처음 생긴다는 말을 듣고 1993년 서울시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공직에 들어섰다.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창설될 때 관련 업무와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38세금징수과는 20년간 3조6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원래는 경영 관련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지방세 분야가 처음 신설되다 보니 여기로 가면 기존 업무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기존 틀을 벗어난 일이에요. 10년을 38세금징수과에서 일하다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에서 외도(?)했는데 그때 경험이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은 38세금징수과에 절반을 함께했다. 처음에는 세무과라는 부서 내에 업무 성격이 다른 체납 담당 직원들과 일반 행정업무 담당 직원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갈등도 많았다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2008년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과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세무종합시스템에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발급시스템, 국세청 사업자등록망 등 여러 시스템으로 체납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계좌 압류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나 고액자기압수표 발행내역 추적 조사도 진행하고 있죠.”

이 과장은 체납세금 징수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점으로 ‘체납자 주소지 찾기’를 꼽았다. 38세금징수과가 관리하는 체납자는 약 2만5000명, 체납 세금액은 2조 원 규모다. 문제는 체납자들이 위장 전입한 경우가 많다는 것. 그들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이 마패를 들고 있다. 세무 공무원증과 서울시 공무원증 등 3개의 신분증이 목에 걸려 있다.

“사람을 만나야 내라고 할 텐데 그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체납자 가족을 먼저 찾고 다음에 실제 거주지를 알아내요. 어떤 사람은 면전에서 체납자가 아니라고 해요.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폭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38세금징수과에서 근무하는 10년 동안 압류한 동산을 경매로 처분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팀 창설 초기에는 가택 수색 후 압류한 고급 냉장고나

운동기구, 미술품, 각종 귀금속 등을 사무실 창고에 그냥 뒀다. 몇 년을 처분하지 않고 압류만 하고 있으니 체납자들이 매각해 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해 조사관도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때만 하더라도 매각 기관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집행관의 유체동산 매각 현장을 따라 다니면서 처분 방법을 배웠어요. 민간 경매시장 여러 곳에서 경매 방법도 배웠고요. 공부한 뒤 서울시청 강당과 체납자 집에서 직접 경매 방식으로 압류품을 처분했어요. 처음 공매한다고 하니 호기심에도 온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 압류품을 다 털었죠. 이탈리아도 자기만 수천만 원에 팔렸습니까.”

이 과장은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에게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제도가 체납자들에게 관대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국세나 세외수익 과태료는 체납하면 감지할 수 있는데 지방세는 규정이 없다. 유치장에 30일 감치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구현을 하는 게 38세금징수과 역할입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절대 자산을 숨길 수 없다. 끝까지 찾아내서 징수하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세금을 못 내는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분은 저희가 복지 연계도 해줍니다. 이 때문에 ‘착한 암행어사’라는 말도 듣죠.” (웃음) 글·사진 홍인석 기자 mystic@

박용만 대한상의 명예회장에 ‘규제개혁 기여’ 국민훈장 모란장



박용만(사진 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등 개인 23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단체가 규제개혁 포상을 받았다.

김부겸(사진 왼쪽)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박 명예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역임 당시 규제샌드박스 안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장 실장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으로 미래차·로봇·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사장에 사샤 아스키지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슈테판 크랍 현 폭스바겐 부문 사장의 후임으로 사샤아스키지안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 아스키지안 신임 사장은 2000년 폭스바겐그룹에 입사하며 자동차 업계와 인연을 맺었다. 2014년부터는 프랑스에서 폭스바겐 상용차와 레저용 차량 부문의 제품과 커뮤니케이션 총괄직을 수행했다. 2017년에는 중남미로 이동해 폭스바겐 브라질의 마케팅 책임자로서 브랜드의 새로운 지역 전략을 주도한 후, 중형픽업 아마록(Amarok)의 영업과 마케팅, 애프터 세일즈를 총괄하며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2019년부터는 아우디폭스바겐 대만의 사장직을 맡아 폭스바겐 브랜드를 이끌어왔다. 유창욱 기자 woogi@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이 집 뒤뜰에서 양봉 중인 벌통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LS

자택 뒤뜰서 도시양봉 시작한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꿀벌 살리기 운동’ 동참...수확한 꿀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이 최근 도시 양봉을 통한 ‘꿀벌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실천에 나섰다.

2일 LS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에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꿀벌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서울 자택 뒤뜰에 작은 벌통을 설치하고 도시 양봉을 시작했다. 구 회장이 설치한 벌통에서 서식하는 꿀

벌은 약 1년 사이 4만 마리에서 15만 마리로 늘었고, 이에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꿀의 양은 연간 10l에 달한다. 구 회장은 이를 별도로 포장해 ‘꿀벌의 개체 수를 늘리고자 양봉을 시작했는데, 꿀이 너무 많이 차서 할 수 없이 생산한 꿀’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하며 이 같은 활동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꿀벌은 식물의 꽃과 꽃 사이를 다니며 수분(受粉)을 하는 곤충으로, 멸종될 경우 인간이 재배하는 주요 100대 작물의

70%가량이 없어질 수 있어 국제연합(UN)이 2017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이라고 별도 지정하기도 했으며, 지구 생태환경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곤충으로 최근 그 의미가 재발견되고 있다.

LS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도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지구 생태환경을 살리기 위한 토종 꿀벌 육성 사업에 올해 7월부터 동참하고 있다. LS미래원 양봉 장소에는 토종꿀벌 약 40만 마리가 서식할 수 있는 26개의 벌통이 설치됐으며, 11월경 수확이 예상되는 60kg의 토종꿀은 LS가 매 연말 개최 중인 나눔 행사를 통해 안성시 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아프간 특별기여자 재정책 지원 LH나눔펀드 임직원 성금 1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김현준·사진)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위해 임직원 성금으로 조성한 나눔펀드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현재 총복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임시 거주 중이다. 이들은 국내 생활 기반이 전혀 없고 음식·언어·문화 등 낯선 환경에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십시일반 마련한 사회공헌 재원인 나눔펀드를 활용해 인도적 지원의 후원을 하기로 했다.

김현준 사장은 “LH 직원들의 마음이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고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j0403@



“팬데믹도 영화 못 막아, 이 고통을 시험대로 삼자” 베니스영화제 개막...심사위원장 봉준호 감독 기자회견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1일(현지시간) 베니스 석회의 리도섬에서 개막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현장 취재진에게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영화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영화감독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이에게 큰 고통, 그것을 하나의 시험대로 삼자”고 말했다. 이어 “수상작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들과 많은 아름다운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부음

- ▲이강숙 씨 별세, 정근영(전 현대건설 홍보실장) 씨 부인상, 정수빈·상민 씨 모친상, 나가무라 카에 씨 시모상, 하태우 씨 장모상 =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02-3010-2000
- ▲신명우 씨 별세, 김준식(인천가톨릭

- 의료원장·전 가톨릭관동대 의무부총장)·만식(인제대 교학부총장)·천희(한남대 교수)·도식(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씨 모친상, 선우명훈(아주대 교수) 씨 장모상 = 2일, 인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32-290-3516
- ▲이무남 씨 별세, 김동하(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교수) 씨 장인상 = 2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1일(현지시간) 열린 제78회 베니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봉준호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베네치아/로이터

파올로 소렌티노의 ‘신의 손’ 등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 영화는 올해 초청작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혜리 기자 hyeri@

듀폰코리아 대표이사에 신동만 씨

듀폰코리아는 1일자로 신동만(50)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신임 대표이사는 한화, 다우코닝, 다우케미컬을 거쳐 2019년부터 듀폰 모빌리티&머티리얼그룹 산하 기능성재료사업부 아시아태평양 영업 부사장을 맡아왔고, 앞으로 듀폰코리아 대표이사를 겸하게 된다.



인사

-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조세정책과장 변광욱 △조세특례제도과장 박상영 △법인세제과장 배정훈 △재산세제과장 이재면 △부가가치세과장 이주현 △산업관세과장 정형 △계약정책과장 조규산
- ◆보건복지부 ◇국장급 파견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정영훈
- ◆우정사업본부 ◇전보 △서울지방우정청장 신대섭 △경인지방우정청장 허원석
-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임명 △농어촌개발이사 김규전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임 △혁신성장본부장 양찬희
- ◆GC녹십자 △경영전략실장 배백식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글로벌마켓부장 겸 뉴욕특파원 조재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술핵을 배치해야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이미 한반도에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잠잠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다시 고개를 드는 안보 이슈가 있다. 바로 우리의 핵보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도입 등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미·소 간 핵 군축 및 냉전체제의 종식 과정에서 남과 북은 1991년 12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당시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전력이 모두 철수로 귀결되었다.

자적 핵무장은 국제비확산 레짐을 우리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평화적인 핵 이용국, 모범적인 원전 수출국 등으로 쌓아 올린 국가적 명성을 실추시킨다.

이처럼 독자적인 핵 무장론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일각에서 나온 것이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 공유인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도에 들어 놓을 정치·군사·안보적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막강한 공군력, 해군력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은 굳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 놓지 않더라도 유사시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다.

나토식 핵 공유도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불안심리에서 비롯되었다. 미·소 간 핵 경쟁이 핵전쟁으로 치닫는 냉전시대에 유럽의 방위를 위해 집단방위체제가 도입되

었다. 핵 공유라는 시스템도 도입되었지만, 나토식 핵 공유도 사실상 운용은 거의 미국의 절대적인 판단에 따라 전개된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한반도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배경은 이해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어떤 것이 우리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과학 놀이터



이난영 과학 칼럼니스트

한때 연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던 곰인형이 있었다. 귀여운 외모의 곰돌이가 자신의 심장 부근을 누르면 앙증맞게 '아이 러브 유'를 외쳐댄다.

인공지능(AI)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NLP의 응용 분야는 대단히 넓다. 이 중 가장 흔하게 접하는 예가 '질의응답 시스템'이다.

내 감정까지 읽는 AI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의미뿐 아니라 감정도 전달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글이나 말 속에 사람 자체가 담기기도 한다.

패러다임에선 규칙, 즉 프로그래밍과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될 데이터를 입력하면 해답이 출력된다. 반면 머신러닝에서는 샘플과 기대값, 즉 데이터와 이 데이터로부터 기대되는 해답을 주면 스스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실행 규칙을 찾는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오고 만디노 명언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실패 따위가 나를 압도할 수 없다." 성공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리즈를 쓴 미국의 작가.

유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던 지난해 연말,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사업을 이끄는 고동진 IT·모바일(IM) 부문장(사장)은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와인을 선물로 건넸다.

스마트폰 산업 강국이 된다는 것은 모바일리티 IoT(사물인터넷) 시대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도 같다. 스마트폰으로 TV와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고, 집안의 조명을 끄거나 켤 수도 있다.

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기기 간 연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통신, 반도체 등이 집약된 첨단산업의 결정판이기도 하다.

하다. 여기에 폴더블폰 경험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중요하다. 정교한 금형 기술과 같은 전통 제조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 시사상식 / 맘고리즘 맘(mom)과 수학이나 컴퓨터공학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화된 절차를 뜻하는 알고리즘(Algorithm)의 합성어.

기자수첩



권태성 산업부/tskwon@

삼성 폴더블폰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스마트폰 산업 강국이 된다는 것은 모바일리티 IoT(사물인터넷) 시대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도 같다. 스마트폰으로 TV와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고, 집안의 조명을 끄거나 켤 수도 있다.

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기기 간 연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통신, 반도체 등이 집약된 첨단산업의 결정판이기도 하다.

고 사장이 협성회 회원사들에 선물했다는 갤럭시와인은 18개월간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한 한정 수량의 켈트 와인(소량 생산되는 고품질 와인)이라고 한다.

☆ 신조어 / 다만추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의 줄임말이다.

Table with columns: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대표전화,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이슈&인물

옵티머스 사태와 예탁결제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다”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의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7월 초 예탁원의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건설사 등의 사모사채를 인수해 펀드를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이 실제 매입한 6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출채권으로 입력해 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예탁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체결한 위탁 계약이 사무관리회사의 수탁업무와 동일하다”며 “예탁원 역시 옵티머스 사태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예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체결한 위탁 계약이 사무관리회사의 수탁업무와 동일하다”며 예탁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이용우 의원실

예탁원·옵티머스 체결 위탁계약 사무관리회사 수탁업무와 동일 운용사 보조업무 주장은 책임회피

외화증권 예탁원에 집중예탁의무 초기 규모의 경제 위해 필요했지만 이젠 독점구조가 경쟁 막는 상황

금융상품, 정보비대칭성 심한 영역 소비자에게 피해 입증 책임 안돼 판매자가 의무 다한 사실 입증해야

는 기회를 잃었다”며 “각 증권사의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규비즈니스 개발에 장애, 현지 정보를 즉시 직접 받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예탁원 측은 작년 말 관련 연구용역을 외부에 위탁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 9월 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펀드넷 통한 비시장성 자산의 코드화

이 의원은 “사모펀드는 사모사채, 부동산 등 전자등록이나 예탁되지 않는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아, 운용사의 기록인 운용자산명세서와 수탁은행의 보관 자산이 불일치되어도 이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6월 말 예탁원은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과 ‘잔고대사 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된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오픈했다.

이 의원은 “물론 비시장성 자산 분류체계 마련으로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글로벌 비시장성 자산이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전부 표준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어쨌든 이전보다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대사업무 개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탁원의 낮은 사무수탁 수수료에 대해 “펀드 운용, 판매, 재산보관(수탁)이 각각 분리를 통해 각 참여자가 상호 견제와 감시로 이해상충과 고객자산 보호가

가능한 구조, 각 참여자의 역할에 맞는 수수료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국내 펀드시장은 판매자 위주의 시장이어서 판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자산수탁 및 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낮은 구조”라며 “이들이 펀드 자산수탁 및 자산평가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수수료를 인상하고 관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펀드 수수료 체계는 전체 평균 100bp로 봤을 때 판매 65bp, 운용 29bp, 수탁 4bp, 사무관리 2bp로 구성됐다. 해외의 경우 한국과 달리 투자회사형 펀드(뮤추얼 펀드)가 대부분이어서 사무관리 및 수탁은행 역할이 중요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탁(Custodian)과 사무관리(administrator + transfer agent)를 합해 약 10~20bp 수준이다.

손해배상 책임 부여만으로는 부족

3월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영역”이라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지도록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한 자본시장 전문가로 현대경제연구원, 존스홉킨스 대학 방문연구원, 한국투자신탁운용 CIO,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시설

2분기 0.8% 성장, 하반기 경기는 살얼음판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8%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말 나온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p) 높아졌다. 작년 3분기(2.2%)부터 4분기(1.1%), 올해 1분기(1.7%)에 이어 4분기 연속 플러스다. 민간소비 회복에 크게 힘입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4.0% 달성도 어렵지 않은 흐름이다. 2~4분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이면 가능한데, 2분기에 이를 크게 웃돌았다.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등)와 서비스(오락문화·음식숙박 등) 소비가 늘어 3.6%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 지출을 중심으로 3.9% 늘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위주로 1.1% 확대됐다. 반면 수출은 작년 부진의 기저효과와 약화로 -2.0%의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와 액정표시장치(LCD) 등이 저조했다.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기여도가 각각 1.6%p, 0.7%p였고, 순수출(수출-수입)은 -1.7%p로 나타났다.

앞으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관건이다. 델타변이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져 확산세를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회복세를 타던 경기가 다시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불안한 지표들이 나온다.

통계청이 조사한 7월 산업활동동

향에서 경기의 양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감소했다. 7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가 112.1(2015년=100)로 전월 대비 0.5% 줄어 6월 1.6% 증가에서 한 달 만에 다시 뒷걸음쳤다. 광공업생산은 0.4% 증가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행정 생산이 -8.3%로 크게 줄었다. 서비스생산도 정보통신과 도소매업 증가에 불구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거리두기 방벽으로 음식·숙박·예술 및 여가 등 대면업종이 큰 폭 감소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 또한 119.3으로 0.6% 하락했다. 6월에는 1.4% 늘었다. 앞으로 경기는 더 불투명하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2p 낮아진 102.6이었다. 이 지수는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상승했으나 14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코로나 상황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길어지고 있다. 그나마 수출 호조가 버티주고 있지만,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는 한계가 뚜렷하다. 코로나 터널을 빨리 빠져나오는 것 말고 달리 돌과구가 없다. 백신이 열쇠다. 아직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57.4%, 2차까지의 접종완료율은 31.7%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 앞으로 부스터샷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도 충분한 백신접종이 전제돼야 한다.

영화로 보는 세상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위해... ‘빌리 엘리어트’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의 한 소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 결국 성취하고 만다는 흔한 이야기이지만, 사실 여가엔 아버지와 아들의 짝 내 나는 사연이 담겨 있다.

때는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 시기다. 대처 수상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시작하였고 그 여파는 시골 탄광촌까지 미친다. 탄광촌에 사는 11세 소년 빌리(제이비 벨)는 복싱을 배우러 다니다가 우연히 발레 수업을 보고는 묘한 매력을 느낀다. 발레의 동작을 따라다 해본다. 천재 소년의 옆엔 항상 그의 재능을 발견해 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 법. 발레 선생님 윌킨슨(줄리 월터스)은

빌리에게 영국 최고 명문인 로열발레학교의 오디션을 보라고 권유하지만 집안 사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더군다나 여자나 하는 발레라니. 완고하고 보수적인 아버지(제리 루이스)는 그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다. 결사 반대하는 아버지 몰래 연습장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던 빌리는 불쑥 체육관에 찾아온 아버지와 맞닥뜨리게 된다. 빌리는 그의 진심을 담아 춤을 보여준다. 발레 공연이라곤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는 춤을 추며 행복해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

심한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몫이다. 총과업을 하는 중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레슨비를 벌기 위해 어두운 탄광 안으로 들어갔다. 동료들의 조롱과 질타에도 아랑곳없다. 입학 오디션에서 빌리는 최선을 다한다. 심사위원이 “넌 발레를 왜 하니?”라고 묻는다. 빌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진심을 담아 내뱉는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마치 새가 된 것처럼.”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개인의 질곡을 절묘하게 이야기로 배합한 명작이며, 다양한 장르로 변주되고 있다.

오랜 친구를 최근 잃었다. 급작스런 죽음이 다. 평생을 시민운동에 정열을 불태웠고 전날까지도 한 시민단체의 수장이었다. 언젠가 아

들이 발레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했다. 이 친구 역시 발레 공연을 그때까지 단 한 편도 보지 않았었다.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친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힘을 다해 뒷바라지할 걸로 알고 있다. 발레 최고 명문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옛그제 장례식 추도사에서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꼈다며 울음으로 고백했다. 그때 나는 이 영화가 미치도록 다시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보면서 많이 웃었다. 잘 가라 친구야.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SAMSUNG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류케어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맞춰서
 마침내 의류케어의 완성

BESPOKE 슈드레서 | BESPOKE 에어드레서 | BESPOKE 그랑데^{AI}

가전을 나답게.